주간통일정세 2011-22(2011.05.23~05.29)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1-22

Contents

>> Ⅰ.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Ⅰ.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北양형섭, 아프리카 순방차 출국(5/2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이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를 친선방문하기 위해 26일 평양을 떠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그러나 중앙통신은 양 부위원장이 나이지리아 외에 어느 국가를 방문하는지와 방문 배경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北김정일, 김정은과 '방중 축하공연' 관람(5/29,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중국 방문 성과를 축하하는 군 협주단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
- 중앙통신은 방문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이 나름의 성과가 있었음을 내외에 선전하기 위해 이러한 행사를 마련함.
- 중앙통신은 "김정일 동지의 중국 비공식방문 성과를 축하하는 조선인민내무군 협주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이 진행됐고 김정일 동지께서 공연을 관람했다"고 밝힘.
- 중앙통신은 "김정일 동지께서는 인민내무군협주단이 인민 대중을 혁명과 건설로 힘있게 불러일으켜 선군시대의 나팔수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고 강령적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전함.
- 이날 공연 관람에는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기남 · 최태복 · 홍석형 비서,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강석주 내각부총리, 장성택 당 행정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영일 · 김양건 · 박도춘 · 최룡해 · 태종수 · 김평해 · 문경덕 비서도 함께함.
- 또한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과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김경옥 · 김원홍 · 김명국 · 김영철 · 윤정린 당 중앙군사위원, 현철해 국방위원회 국장도 김 위원장을 수행함.

[김정일 국방위원장 訪中(방중) 관련기사]

○ <김정일訪中>김정일·장쩌민 회동은 '공식'(5/23,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불원천리(不遠千里) 양저우(揚州)를 간 이상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과의 회동은 일종의 공식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런 사실을 확인하지 못할 것이다"며 "중국 외교무대에서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김정일 위원장과 장쩌민 전 주석이 언제 어디서 얼마동안 만난 것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전함.
- 이는 극도의 폐쇄성을 보이는 북한과 중국의 실정을 그대로 드러낸 표현으로 김정일 위원장이 현직이던 장쩌민 주석과 잇따라 회담했던 2000년, 2001년, 2004년 방중을 제외하고, 네 번째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시절인 2006년 방중 때에 장 전 주석과 '별도로' 만난 사실을 첫 보도한 매체는 홍콩명보였다고 전함.
-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김정일 위원장과 장쩌민 전 주석 간 관계가 아무리 가깝다고 하더라도 3천㎞를 달려 온데는 뭔가 사정이 있고, 그게 장쩌민 전 주석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데 있으며, 옛 정을 나누기 위해 왔다기보다는 급한 속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함.
- 사실 북한의 현실적인 차기 권력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삼남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위원회 부위원장의 권력승계를 인정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후진타오 주석을 정점으로 한 현 지도부는 '3대 세습'을 인정한다는 국제적 비난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실제 중국의 현 지도부는 전 권력인 장쩌민 전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만남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려한다는 분석도 제기됨.

○ <김정일訪中> 양저우 한장개발구 방문(5/23,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방중 나흘째인 23일 오전 장쑤(江蘇)성 양저우(揚州) 시내 한장개발구를 방문해 IT 업체를 찾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김정일 위원장이 방문한 업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현지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이날 양저우 시내의 화양 태양광업체를 방문할 것으로 점치고 있으며 한 시간 거리인 우시(武錫) 소재 세계 제1의 태양광업체인 썬택을 방문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음.
- 현재로선 김정일 위원장이 장쩌민 전 국가주석과 회동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적어도 양저우 방문 기간에는 회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임.
- 김정일 위원장은 2000년, 2001년, 2004년 중국을 방문했을 때에는 현직인 장쩌민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고,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시절인 2006년 1월 10~18일 중국에 왔을 때는 1월 12, 13일 이틀 동안 광저우(廣州)에서 별도로 만날 정도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김정일訪中> 北, 두마리 토끼잡기(5/23, 연합뉴스)**

- 한반도 최북단 접경인 중국 투먼(圖們)에서 시작한 행로가 무단장(牧丹江)-하얼빈(哈爾濱)-창춘(長春)을 거치면서 경협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양저우(揚州) 일정을 시작하면서 북한 후계 구도에 포커스가 맞춰진 듯한 분위기라며 연합뉴스는 전함.
- 북한과 중국 간 경협이라면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를 대내외에 강조하는 환영받는 이슈지만, 북한 후계구도 강화 문제는 '3대 세습'으로 비쳐 거부감을 줄뿐더러 중국의 현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한다는 지적이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행보는 거침없어 보인다고 뉴스는 전함.
- 김정일 위원장이 장쩌민 전 주석을 불원천리(不遠千里) 마다않고 찾아온 까닭은 현직이 아니면서도 상하이방의 최대주주로서 여전히 현실권력이라는 점에 주목할 만하며, 특히 내년 10월 제18차 당대회에서 차기 최고지도자로 유력시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상하이방 계열이라는 점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고 뉴스는 전함.

○ **<김정일訪中>北,中의존 심화.."6자 재개에 유리"(5/23,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북·중관계의 '긴밀화'가 뚜렷한 추세로 확인됨에 따라 북핵 6자회담 재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 이번 방중은 현 북·중관계가 그간의 정무·안보 중심에서 벗어나 경제 분야로 저변을 넓혀가며 전방위적 '결속'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외교가의 지배적 관측
- 현재 중국은 동북아 역내의 주도권을 잡고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6자회담 재개에 적극적으로 동북아 정세불안의 진앙인 북한 핵문제를 '관리'하면서 권력승계 과정에서 노출될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며 뉴스는 전함.
- 중국으로서는 개혁·개방을 겨냥한 경협확대와 투자를 내걸어 북한으로 하여금 남측과의 '비핵화 대화'에 나서도록 독려할 가능성이 있으며, 식량난이 발등의 불인 북한으로서도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이 현실적으로 다급한 상황에서 중국의 요구를 거부하기란 쉽지 않다는 해석
- 이런 맥락에서 이번 방중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수순밟기'의 성격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한 외교소식통은 "그동안 강경책을 고수해온 북한으로서는 이번 방중으로 대화복귀의 명분을 얻을 수 있다"면서 "방중 이후에 남북 비핵화 회담에 대해 북측으로부터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함.

○ **<김정일訪中> 나흘째..'여유있는' 하루 보내(5/23,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방중 나흘째인 23일 오전 9시(한국시각 오전 10시)께 숙소인 장쑤(江蘇)성 양저우(揚州) 영빈관을 나서 한장개발구내 IT 업체를 찾았다가 돌아왔고, 오후에는 영변관 건너편의 SG할인마트를 찾은 것 외에 눈에 띄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연합뉴스는 전함.
- 현지에서는 김 위원장이 시내에 있는 화양태양광업체와 한 시간 거리의 우시(武錫) 소재 세계 제1의 태양광업체인 썬택을 찾을 것으로 점쳤으나

예상이 빗나갔으며, 아울러 김일성 주석이 장쩌민 주석과 함께 방문해 민족주의와 민족대단결의 중요성을 역설한 곳으로 알려진 사가법(史可法) 기념관이 김정일 위원장의 방문 예상지로 지목됐었지만 역시 들어맞지 않음.

○ **<김정일방중> 시진핑, 양저우 동행한듯(5/23,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23일로 나흘째를 맞는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의 동행하고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된다며 연합뉴스가 보도
- 현지소식통은 "시진핑 부주석이 양저우(揚州)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시 부주석의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고 말함.
- 양저우가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의 고향이고, 시 부주석이 장 전 주석이 '최대주주' 격인 상하이방 계열이라는 점도 시 부주석이 김 위원장의 양저우 일정 동행을 관측토록 하는 한 요인이라는 지적

○ **<김정일訪中> 대형마트 '깜짝' 방문(5/23, 연합뉴스)**

- 중국 장쑤(江蘇)성 양저우(楊州) 방문 이틀째인 23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숙소인 양저우 영빈관 인근의 대형 할인마트를 깜짝 방문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 김 위원장 일행은 4층 건물인 이 할인마트의 2층 생필품 코너를 둘러본 뒤 15분 만에 빠져나와 곧장 영빈관으로 갔다고 뉴스는 전함.

○ **<김정일訪中> 장쩌민과 오늘 만찬한 듯(5/23,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23일로 나흘째를 맞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과 이날 만찬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진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현지소식통은 "김 위원장과 장 전 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장쑤성 예술단의 공연을 겸한 만찬이 오늘 저녁에 펼쳐진 것으로 안다"고 말함.
- 또 당초 김정일 위원장의 양저우 일정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진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싱가포르의 리콴유 초대 총리를 만났다고 신화통신 등이 보도함에 따라 양저우에 가지 않았거나, 갔었다고 하더라도 이날 오전 중에 상경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는 전함.

○ **<김정일訪中> 닷새째..'남행 또는 북행' 주목(5/24,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4일로 방중 닷새째를 맞는 가운데 차후 행로에 관심이 모아진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 현지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의 특징은 과거 여섯 차례 방중을 통해 둘러봤던 도시를 다시 찾으면서 미처 보지 못했던 곳을 찾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특별열차가 일단 분기점인 난징(南京)으로 가서 차후 행선지로 갈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함.
- 김정일 위원장은 두 번째 방중인 지난 2001년 1월 상하이 방문 때 푸둥(浦東) 지구의 발전상을 보고 "천지개벽했다"며 감탄을 쏟아냈으며, 아

울러 그 다음해인 2002년 7월 1일 북한 나름의 개혁개방조치인 7.1조치와 금강산 특구 제정 등을 결단한 바 있기에 김 위원장이 상하이를 재차 방문한다면 이와 유사한 조치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도 있음.

- 앞서 방중 나흘째인 23일 저녁 김정일 위원장은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과 함께 숙소인 영빈관에서 공연을 겸한 만찬을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자리에서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참석한 게 목격됨.
- 따라서 다이 국무위원이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성광주(盛光祖) 철도부장과 더불어 김정일 위원장의 이번 방중을 수행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며 뉴스는 보도

○ **<金正日訪中> 닷새째..일단 난징 도착(5/24,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4일로 방중 닷새째를 맞는 가운데 일단 이틀간 묵었던 장쑤(江蘇)성 양저우(揚州) 영빈관을 출발해 난징(南京)에 도착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김 위원장 일행은 이날 오전 8시 32분(한국시간 오전 9시 32분)께 무장경찰차의 선도로 40여대의 차량 편으로 이동해 양저우 역으로 가지 않고 2시간 가까이 달려 난징 둥자오(東郊)빈관에 도착해 여장을 풀었으나 난징에서 김 위원장이 어디로 향할지는 관측이 쉽지 않다고 뉴스는 전함.

○ **<金正日訪中> 中 최대 전자업체 판다전자 방문(5/24,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방중 닷새째인 24일 난징(南京)에서 중국 최대 전자업체인 판다전자(熊猫電子)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소식통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자동차를 이용해 오전 9시50분께 난징에 도착, 판다전자를 방문한 후 동교빈관에서 여장을 풀고 바로 나와 난징 외곽의 신도시 허스(河市)의 올림픽 주경기장과 세계박물관 등을 둘러보고 다시 동교빈관으로 옮겨 점식 식사를 함.

○ **<金正日訪中> 특별열차, 베이징 향한 듯(5/24,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태운 특별열차가 현지시각으로 24일 오후 2시 5분(한국시각 오후 3시 5분)께 난징(南京)역을 출발해 베이징(北京)을 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김정일 위원장은 통상 베이징에 도착하면 댜오위타이(釣魚臺)에 여장을 풀고 그 안에서 북중 정상회담과 더불어 중국 수뇌부와 회동해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그런 관례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스는 전함.
- 통상 베이징 방문과 북중 정상회담이 김정일 위원장 방중의 마무리 순서라는 점에서 25일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김 위원장이 같은 날 귀로에 오르거나, 댜오위타이에서 1박을 하고서 26일 귀국할 것으로 예상함.
-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북중 경제협력과 북한 후계구도, 한반도 비핵화, 국제 및 지역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됨.
- 특히 멍젠주(孟建柱)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이 지난 2월 13~15일 방북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중국 수뇌부의 북한 후계구도 인정 발언을 한 바 있어, 이와 관련해 중국 수뇌부가 어떤 언급을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김정일訪中> 김정일 베이징 도착..조어대 여장(5/25,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5일 오전 베이징(北京)에 도착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김 위원장이 이처럼 오전 시간대에 도착함에 따라 이날 중에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의 북중 정상회담을 할 게 유력하다고 뉴스는 전함.

○ **<김정일訪中> 북중 정상회담 시작한 듯(5/25,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이 25일 오후 5시 30분(한국 시간 오후 6시 30분) 즈음에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현지 소식통은 "통상 만찬이 오후 7시께 시작하는 점으로 미뤄 1시간 30분 전에 회담이 시작됐을 것"이라며 "근래 몇 차례 북중 정상회담 후 만찬이 이뤄져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정상회담에는 그간 관례로 볼 때 중국 측에서 시진핑(習近平) 부주석,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등이, 북한 측에서는 최태복 당비서, 강석주 내각 부총리 등이 배석했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뉴스는 전함.
- 정상회담 후 만찬에서는 해외순방중인 우방궈(吳邦國)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
- 베이징 현지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후진타오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다오위타이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별도로 정상회담을 했을 것으로 뉴스는 전함.
- 김 위원장은 이전 베이징 방문에서도 후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서 원 총리와는 따로 정상회담을 해왔는데, 이는 중국의 '독특한' 정치체제에 따른 것으로, 국무원 수반인 원 총리가 정부를 대표하기 때문이라는 지적

○ **<김정일訪中> 김위원장, 中수뇌부와 회동(5/25,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5일 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어진 환영 만찬에서 중국의 집단지도체제를 이끄는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여럿 만난 것으로 관측된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 김 위원장은 매번 방중 때마다 국가주석과 국무원 총리를 비롯한 9명의 정치국 상무위원 대부분과 회동하며 양국 간의 끈끈한 유대 관계를 안팎에 과시해왔다며 뉴스는 전함.
- 김 위원장은 이번 베이징 방문에서도 후 주석과의 만찬 외에 원 총리와 양국 간 경협 활성화 방안을 주요 의제로 놓고 별도의 회담을 이날 이미 가졌거나 26일 가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원 총리를 보좌하는 리커창 부총리가 배석할 것이 확실시 된다며 뉴스는 보도

○ **<김정일訪中> 북중 정상회담 종료(5/25,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2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담에서 3시간이 넘는 정상회담과 만찬을 했다고 연합

뉴스는 보도

- 정상회담에서는 우선 두 정상이 각각 자국의 사정을 소개하면서 상대국을 칭찬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경제시찰을 통해 본 중국 개혁개방의 눈부신 성과를 극찬하고, 후 주석은 북한이 최근 적극적으로 나서는 개혁개방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식으로 화답한 것으로 뉴스는 전함.
- 두 정상은 이어 북중 경협, 북한 후계구도, 북핵 6자회담, 국제 및 지역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 베이징 현지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후진타오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댜오위타이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별도로 정상회담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과 더불어 26일 오전 회담후 오찬 회동이 있을 것이라는 추론도 제기됨.

○ **<金正日訪中> 리커창, 김정일 시찰 동행(5/26, 연합뉴스)**

- 중국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상무부총리 겸 공산당 상무위원이 26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관춘(中關村) 시찰에 동행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이 찾은 중관춘 내 IT기업인 선저우수마(神州數碼. Digital China) 직원들은 리 상무부총리가 김 위원장과 같이 회사를 찾아왔다고 전함.

○ **<金正日訪中> 베이징역 출발..귀로 오른 듯(5/26,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태운 특별열차가 26일 오후 2시 19분(한국시간 오후 3시 19분)께 베이징(北京)역을 출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특별열차는 일단 북상한 것으로 알려져 선양과 단둥을 거쳐 북한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뉴스는 전함.

○ **김정일 "6자회담 조기 재개해야"(5/26, 신화통신)**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한반도 정세의 완화를 희망하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해 갈 것이며,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주장한다"고 밝힘.
- 신화통신은 26일 김 위원장이 방중 기간에 개최된 북·중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고 보도
- 신화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줄곧 성의를 보여왔다"고 덧붙임.
- 김 위원장은 이어 "북한은 현재 경제건설에 집중하고 있으며 매우 안정된 주변 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해온 점에 감사를 표시한다"고 언급
- 이에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북한이 한반도 정세를 완화하고 외부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우리는 관련국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의 기치를 들고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며 서로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함.
- 후 주석은 이어 "중국은 시종 북중우의를 굳게 지키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을 결코 변치않는 방침으로 삼고 있다"며 "중국은 북한과 더불어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유지·촉진해나가고자 한다"고 강조

- 후 주석은 이를 위해 ▲고위층 교류 강화 ▲당·국가 관리 경험 교류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확대 ▲문화·교육·체육 교류 심화 ▲국제 및 지역 정세와 중대 문제에 있어서 소통·협조 강화 등의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덧붙임.
- 후 주석의 제안에 김 위원장은 "북중 양국 인민의 우호관계는 귀중한 것"이라며 "우호의 배턴을 대대로 전해내려가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인 사명"이라고 말했으며, 김 위원장은 이어 올해가 북중우호조약 체결 50주년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는 북한과 중국의 선대 지도자들이 물려준 중요한 유산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제분야와 관련해 후 주석은 북한이 인민 생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고, 김 위원장은 "중국 각지를 방문하면서 경제사회 발전이 이뤄지는 모습을 보고 놀랄 만한 변화들이 나를 감탄하게 한다"고 화답함.

○ **<김정일訪中> 김정은 수행명단에 없어(5/26, 신화통신)**

- 신화통신에 의하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이달 20-26일간의 중국방문중 동행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당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김 위원장 수행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신화통신은 이날 "김정일 조선노동당 총서기 겸 국방위원장이 후진타오(胡錦濤)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초청으로 20-26일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다"고 밝혔으며, 김 위원장의 방중 때 북한 측에서 최태복, 김기남 노동당 중앙서기, 강석주 내각부총리, 장석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태종수, 박도춘, 문경덕, 김영일 당중앙서기 등이 수행했다고 보도

○ **<김정일訪中> 김정은 수행명단에 없어(5/2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초청을 받아 20일부터 26일까지 중국을 비공식 방문하고 6자회담 재개 등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밝힘.
- 중앙통신은 "김정일 동지는 후 주석과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6자회담의 재개 등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며 장애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전반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위해 의사소통과 조율을 잘해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함.
- 중앙통신은 "최고영도자들이 조중친선협조관계를 대를 이어 계승하고 공고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남이 대신할 수 없는 공동의 성스러운 책임과 확고부동한 입장이라는 데 대해 견해를 같이 했다"고 밝혀 김정은 후계체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시사
- 중앙통신은 "김정일 동지는 방문기간 경제와 문화, 첨단과학기술 분야를 비롯해 드넓은 중국대륙에서 이룩되고 있는 성과들에서 급속히 변모되고 있는 중화대지의 약동하는 발전상에 대해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다"며 김 위원장이 베이징 중관촌의 정보통신 서비스업체 선저우수마(神州數碼) 등을 방문했다고 소개

-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25일 숙소를 방문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를 만나 담화했다고도 전함.

○ **<金正日訪中> 軍 대신 당 실세들이 수행(5/26, 조선중앙통신)**
- 20일부터 26일까지 이뤄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일곱 번째 중국 방문은 매제인 장성택 당 행정부장 등 실세들이 수행했지만 군(軍) 인사는 눈에 거의 띄지 않음.
- 26일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에는 김기남·최태복 비서와 강석주 내각부총리, 장성택 당 행정부장 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일·박도춘·태종수·문경덕 비서,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 등 11명이 수행함.
- 이들 중 가장 눈에 띄는 이는 지난해 5월 방중에 처음으로 수행단에 포함된 후 그해 8월과 이번까지 세 차례의 방중을 모두 수행하며 실세의 위상을 과시한 장성택은 외자유치 창구인 북한 합영투자위원회를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방중에서 양국 정상 간의 경제협력 방안 논의를 도왔을 것으로 보임.

○ **<金正日訪中> 우호강조..경협 성과 저조한듯(5/26, 연합뉴스; 신화통신)**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7일간의 방북일정을 마치고 26일 귀국길에 올라 그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번 방중은 지난 1년 사이에 무려 세번째였기에 '눈에 띄는' 성과가 기대되었으나 그렇지 못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신화통신이 이날 쏟아낸 김 위원장의 방중 보도를 살펴보면 우호는 강조됐지만 북핵 6자회담과 북중 경제협력의 분야에서는 큰 알맹이가 없어 보인다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는 평가된다고 뉴스는 밝힘.
- 김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북중 간 당국 간 합의로 황금평과 라선특구 합작개발과 관련한 '청사진'이 담긴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됐으나, 결과가 착공식 취소로 이어지면서 북중 경협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
- 사실 창지투 계획은 동해로 가는 길이 막힌 중국의 동북3성이 엄청난 물류 비용을 지불해가면서 랴오닝성 다롄(大連)과 단둥(丹東)항을 이용해야 하는 난관을 북한이 라진항 또는 청진항 등을 개방해서 해결하자는 게 골자지만 양국 간에 접점 도출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연합뉴스에 의하면 중국은 그동안 이른바 동해출항권을 싼 값에 얻으려 했고, 북한은 그런 '거래'를 할 수 없다고 버텨왔다는 점으로 이런 기조가 이어진 것이라는 분석

○ **김정일 방중기간 김정은 북한 체류(5/2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후계자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따라가지 않고 북한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27일 방중을 마치고 돌아온 부친 김정일 위원장을 국경에서 마중했다고 보도
- 김 위원장은 후진타오 주석에게 감사전문을 보내 "이번 상봉과 회담과정

에서 상호 관심사인 모든 문제에서 훌륭한 견해일치를 이룩한 데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하면서 조중친선이 앞으로도 대를 이어 변함없이 강화 발전되리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중앙통신에 따르면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과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 등이 김 위원장을 국경에서 맞이했으며, 김 위원장은 헤이룽장성 무단장(牧丹江)에서 김일성 주석의 항일혁명투쟁사가 깃든 징보후(鏡泊湖.경박호)를 방문하고 농장과 목장을 찾음.
-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장쑤(江蘇)성 양저우(揚州)시를 찾았다면서 "수령님께서 1991년 10월 마지막 중국방문시 장쩌민 주석의 안내로 돌아보신 뜻깊은 도시"라고만 보도하고 김 위원장이 장쩌민을 만났는지는 언급하지 않음.

○ **김정일-원자바오, 경제정상회담 별도 개최(5/27, 중국관영중앙TV; 신화통신)**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번 방중 기간 사실상 처음으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별도의 '경제정상회담'을 가진 것으로 확인
- 27일 중국 관영 중앙(CC)TV의 김 위원장 방중 기록영상을 분석한 결과 김 위원장은 25일 숙소인 댜오위타이(釣魚臺)를 찾은 원 총리와 확대정상회담 형태의 정식 회담을 한 것으로 밝혀짐.
- 26일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압록강신대교 건설을 예로 들어 최근 북중 간 경제무역 협력이 많은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서 협력 수준을 새로운 높이로 격상하자고 제안
- 회담의 구체적인 성과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전례없는 경제정상회담이 진행된 점으로 볼 때 북·중 경제협력과 관련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을 것으로 추정됨.

■ **김정일 동향**

- 김정일, 5.20~26 호금도 주석 초청에 의해 중국 비공식 방문(5/26, 중통·중·평방)
  - 김기남, 최태복, 강석주, 장성택, 김영일, 박도춘, 태종수, 문경덕, 주규창, 김계관, 지재룡 수행
  - 호금도, 온가보, 가경림, 리장춘, 습근평, 리극강, 하국강, 주영강과 各各상봉 및 담화
  - 방문기간 경제·문화·첨단과학기술분야 등 중국의 발전상 직접 목격

■ **기타 (대내 정치)**

- 北'만수대지구' 건설 착공식, 5.22 창천네거리에서 진행(5/22, 중방·중통)

나. 경제

"北라선 · 황금평, 시장원리 산업벨트로 육성"(5/23,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은 라선 · 황금평을 시장경제 원리가 적용되는 거점 산업벨트로 조성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며 연합뉴스가 보도
- 북측은 '강성대국 선구지역'으로 건설하겠다는 목표로 라선에는 원자재, 첨단기술 등 6대 산업, 황금평에는 정보, 관광문화 등 4대 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세부계획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이달 말로 예상되는 황금평 개발 착공식을 계기로 북중 경협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뉴스는 전함.
- 23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은 '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에 관한 협정'(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위한 후속작업에 돌입함.
- 또한 이 소식통이 입수한 '조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계획 요강'에는 두 지역을 조선대외교류의 시험지역, 강성대국의 선구지역, 조중 경제협조의 시범지역으로 건설한다고 규정함.
- '두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조중공동위원회 계획분과위'가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이 요강은 작년 말 체결된 것으로 알려진 북중 간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에 관한 협정'(협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관측됨.
- 요강은 계획배경과 총개발목표, 라선경제무역지대 공동개발요강,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 요강, 관리 및 정책보장 등 총 11장으로 이뤄져 있다고 뉴스는 전함.
- 또한 라선지대에는 기초시설, 공업단지, 물류망, 관광의 공동개발 및 건설을 중점으로 하고 원자재공업, 장비공업, 첨단기술공업, 경공업, 서비스업(봉사업), 현대고효율농업 등 6대 산업을 발전시키기로 함.
- 특히 라진-선봉-웅상-굴포에 이르는 '연해(沿海) 복도식' 산업대를 형성한다고 밝혀 일종의 산업벨트 조성을 구상하는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중국 옌볜과 북한 라선 · 청진 · 칠보산 · 금강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 사할린, 일본 니가타 · 삿포로, 남측의 속초 · 부산을 잇는 관광경제권을 형성한다는 계획도 잡혀 있음.
- 또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부계획도 담겨 있는데, 라선지대에는 '1중추, 3방향, 5통로'의 개방식, 국제화된 대교통망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라진,선봉, 웅상항을 중추로 하고 북으로는 중국, 러시아와 연결되고 남쪽으로는 북한 청진과 접하며, 동으로는 북한 동해로 향해있는 조건에 맞게 중국 훈춘(琿春), 투먼(圖們), 러시아 하싼, 북한 청진과 통하는 육상통로 및 해상통로를 구축한다고 되어있음.
- 단기적으로는 원정-라진, 선봉, 웅상항 도로망과 원정-권하 조중 국경 인도교를 보수해 운송능력을 높이고 앞으로 라진-원정, 라진-청

진, 라진-두만강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새로 건설키로 계획함.
- 철도 역시 단기적으로 라진-선봉-남양철도를 개보수하고 장기적으로는 중국 훈춘-북한 훈륭 간 철도를 건설한다는 계획으로 청진시 삼해리에 민영비행장 건설도 포함됨.
- 특히 100만kW 발전능력을 조성키로 하고 풍력발전, 태양력발전 등 대체에너지 공급 가능성을 연구하고, 이동통신망도 구축하기로 함.
-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봉현 기업은행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그동안 북중 간에 협의됐던 내용이 종합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중 정부 차원의 협의를 통해 라선지역과 황금평을 거점 산업벨트로 조성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말함.

경기 · 인천, 北에 말라리아 방역물품 전달(5/23, 연합뉴스)
-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23일 오전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한에 말라리아 방역 물품을 전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첫 대북 지원으로 지원 물품은 모기 유충 구제 약품과 모기향 등 1억6천200만원 상당의 말라리아 방역 물자로, 북한 개성과 황해도 지역에 전달될 예정
- 이번에 전달한 물품은 1차분으로 도(道)는 방역 물품 지원비를 지난해 3억3천400만원에서 올해 10억 원으로 늘려 앞으로 말라리아 진단장비와 방충망, 임신부 예방약 등도 지원할 계획

"방북 美식량평가팀, 내달 2일까지 현장조사"(5/24, 연합뉴스)
- 24일 방북하는 미국의 북한식량평가팀이 내달 초까지 식량 수요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진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외교소식통은 이날 "로버트 킹 미국 대북인권특사가 이끄는 식량평가팀이 북한에서 여러 그룹으로 나눠 활동할 것으로 안다"면서 "킹 특사는 28일까지 평양에 머물고 전문가 그룹은 지방에서 다음달 2일까지 조사활동을 진행할 것 같다"고 밝힘.
- 킹 특사와 브라우스 부국장 등은 평양에서 북한 외무성의 리근 미국국장을 비롯한 당국자들을 만나 분배모니터링 문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 정부는 킹 특사의 방북 이후 한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 대북식량 지원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뉴스는 전함.

北 "日사고에도 핵에너지는 세계 관심사"(5/24, 조선중앙통신; 민주신문)
- 북한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에도 핵에너지 개발이 세계적 관심사라며 자국의 핵개발이 정당하다고 간접적으로 주장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24일자 '민주신문'은 개인필명의 글을 통해 "최근 일본에서 지진으로 인한 핵발전소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원자력발전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핵에너지 발전은 의연히 세계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강조

- 신문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룩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세계의 많은 나라가 천연 에너지 이용에서 핵에너지 개발과 이용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다"고 설명
- 신문은 "핵에너지는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국제사회의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덧붙임.
- 이어 "세계 많은 나라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핵에너지 개발을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고리로 틀어쥐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이탈리아, 브라질, 중국 등을 사례로 언급

美, 北 무기개발 지원기업 제재(5/25,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미국 정부는 24일 북한과 이란, 시리아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외국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힘.
- 국무부는 이날 "'이란 · 북한 · 시리아 비확산법(INKSNA)'에 따라 지난 23일자로 14개 외국기업과 2명의 외국인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다"면서 북한(기업 1개)을 비롯해 중국(개인 1명, 기업 4개), 벨라루스(기업 2개), 이란(개인 1명, 기업 4개), 시리아(기업 2개), 베네수엘라(기업 1개) 등이 포함됐다고 발표
- 국무부는 "이번 제재는 이들 기업과 개인이 북한, 이란, 시리아와 다자간 수출통제 리스트에 올라있는 무기 관련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거나 향후 WMD 및 미사일 시스템 개발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
- 이번 제재는 2년간 지속되며, 미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 기간에 이들 기업이나 개인과는 어떤 거래, 지원, 허가도 중단하게 되었다고 뉴스는 전함.

"유엔, 대북사업에 1천만 달러 긴급지원"(5/25, 미국의소리(VOA))

-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이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들에 약 1천만 달러를 긴급지원한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5일 보도
- VOA는 중앙긴급구호기금이 9백98만 달러(한화 109억여 원)를 북한 관련 사업에 추가했으며 이 중 720만 달러가 세계식량계획(WFP)의 식량지원 사업에 배정되었으며, 유엔아동기금(UNICEF)의 북한주민 영양지원 사업에는 약 110만 달러가, 식량농업기구(FAO)의 구제역 대응 사업에는 89만 달러가 책정되었다고 전함.

"美특사 방북 불구, 원조재개 예단 못해"(5/26, 르몽드)

- 프랑스의 유력 신문인 르몽드는 26일 미국 정부의 주요 인사가 북한의 기근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방북했지만 미국의 원조 재개를 예단할 수는 없다고 보도

- 르몽드는 그러나 세계식량계획(WFP)을 인용, 북한이 식량사정이 위급해 킹 특사가 방북했다면서 이달까지 아무런 원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린이와 부녀자를 포함한 600만 명이 기근 위협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함.
- 이어 신문은 한국과 미국이 2009년 쌀 원조를 중단한 것은 쌀이 꼭 필요한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따라서 이번 킹 특사의 방문이 미국의 원조 재개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임.

北 4월 대중 석탄 수출 사상최대(5/26, 미국의소리(VOA))

- 북한의 4월 대(對)중국 석탄 수출액이 1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26일 보도
- 중국 해관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중국에 114만t가량의 석탄을 수출해 약 1억1천100만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이는 지난해 4월의 17만 2천여t, 132만2천900만 달러에 비해 물량은 6배, 금액은 8배 늘어난 것이라고 방송은 전함.
- 수출량보다 수출액 증가폭이 큰 것은 지난해 t당 76달러였던 석탄 수출가가 올 4월에는 97달러로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VOA는 설명

"美, 대동강맥주 수입 보류"(5/26, 자유아시아방송(RFA); 미국의소리(VOA))

- 미국 재무부가 지난해 9월 수입을 허가했던 북한산 대동강맥주'의 수입을 보류하고 수입허가를 재신청하도록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보도
- 대동강맥주의 수입을 추진해온 스티브 박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 대표는 RFA에 "지난 24일 재무부로부터 대동강맥주 수입을 재신청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며 "서한에는 수입 가능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내용상 수입이 안된다는 내용인 것 같다. 일단 재신청을 해볼 계획"이라고 밝힘.
- 한편 미국의소리(VOA)는 지난달 22일 미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 제품에 대한 수입 허가를 이미 받아 수입절차를 시작한 개인이나 업체들은 해당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명령은 과거 미 정부가 승인한 어떠한 북한 제품의 수입 허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도

"北, 신압록강대교 통한 '개방바람' 경계"(5/26,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신압록강대교 건설과 황금평 개발을 계기로 중국발(發) '개방바람'이 유입될 것을 경계해 교양사업을 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
- RFA는 북한 신의주시 인민위원회의 국장급 소식통을 인용해 "중앙(당)에서 시 당이나 국가안전보위부 간부들을 대상으로 신압록강대교와 황

금평 개발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다"며 "중국이 '다리를 건설해준다' '황금평을 개발해준다'면서 우리를 남조선에 팔아버릴 수 있으니 주체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보도

- 강연에서는 "중국이 남한과 장사를 하기 위해 북측에 신압록강대교 건설을 제안한 것이다. 압록강 다리 건설로 인한 대국주의(大國主義) 침투에 경각심을 가지고 황색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RFA는 덧붙임.

황금평 · 라선특구 착공식 전격 취소(5/26, 연합뉴스)

- 이달 말 예정됐던 황금평과 라선특구 개발 착공식이 전격 취소된 것으로 알려진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황금평과 라선특구는 북한과 중국이 합작개발하기로 한 양국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북 · 중 정상회담을 끝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귀국길에 오르는 시점에 착공 연기설이 나온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연변(延邊)조선족 자치주의 한 소식통은 26일 "오는 30일 라선특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훈춘(琿春)-라진항 도로보수 공사와 라선특구 내 일부 중국기업 공장 착공식이 취소됐다"고 밝혔으며 그는 "북한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북한이) 취소 요청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고 말함.
- 또한 황금평 개발 착공식도 애초 예정됐던 28일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단둥의 한 소식통은 "28일 황금평 개발 착공식이 취소됐다"고 밝히며 "백지화한 건 아니고 2-3일 늦춰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열리더라도 애초 계획됐던 것처럼 '큰 손님'들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함.
- 착공식 날짜가 김 위원장의 귀국 예상 시점과 맞아떨어지면서 북 · 중이 김 위원장 방중 기간 황금평과 라선특구 합작개발을 둘러싼 '통 큰' 합의를 이뤄낸 뒤 이를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준비한 '이벤트'라는 분석이 나왔으나 북 · 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 김 위원장이 귀국길에 오른 시점에 맞춰 착공식 연기설이 불거지면서 양국 간 경협을 둘러싼 협상이 매끄러운 결말을 보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그러나 극비리에 부쳐지는 김 위원장의 방중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착공식 일정이 잡혔다가 단순히 순연된 것이어서 착공식 취소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음.

中, 北라진 도로보수 이달 말 착공 확인(5/27, 연합뉴스)

- 북한의 원정리와 나진항 간 도로 보수공사가 5월 말에 착공될 것이라고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27일 지린(吉林)성 정부 인터넷 사이트를 인용해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지린성에 따르면 이 공사는 중국과 북한 협력 개발 중인 라선지구의

중점 사업으로, 북중 무역협력과 두만강 지역 국제합작개발 사업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원정리-라진항 도로 보수공사 착공식이 취소됐다는 보도가 26일 나온데 이어 그럼에도 해당공사는 이달 말에 시작될 것이라고 지린(吉林)성 정부가 27일 확인하고 나선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함.

소금 부족 北, 남포해수 평양까지 수송(5/29,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연합뉴스에 의하면 북한이 소금 부족으로 평양의 식수 소독에 애로를 겪으면서 남포의 바닷물을 평양까지 끌어오는 수송관 공사에 한창으로 바닷물을 끌어와서라도 평양 시민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겠다는 게 표면적 이유이지만 그리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의 지적
- 지난 24일 조선중앙통신이 "평양에서는 바닷물 공급소 펌프장 건축공사가 끝났고 남포에서도 바닷물 침전지 공사가 거의 끝났다"고 전하는 등 북한 매체들은 지난 2월부터 수송관 공사 진척상황을 속속 알리고 있음.
- 또한 지난 2월 열린 수송관 착공식에서 박병종 평양시 인민위원회 1부 위원장이 "장군님께서 소독용 소금이 긴장한(부족한) 조건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독할데 대한 가르침을 주셨다"고 말한 것을 보면 소독용 소금이 부족한 북한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며 연합뉴스는 전함.

北라진항 확보 中훈춘 석탄업계 '신바람'(5/29, 연합뉴스)

- 북한 라진항 부두 사용권을 확보, 동해 진출 길이 열린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의 석탄업계가 내년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는 남방지역 운송에 대비, 대대적인 생산 설비 확대에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지역 최대 석탄업체인 훈춘광업집단유한공사는 2012년까지 2년 동안 12억 위안(2천억 원)을 들여 연간 석탄 생산량을 1천만t으로 끌어올리기로 함.
- 중국 촹리(創立)그룹이 2008년 북한으로부터 라진항 1호 부두 사용권을 확보, 중국 두만강 유역에서 동해로 진출할 뱃길이 뚫렸으며, d; 그룹은 이미 라진항 1호 부두 정박지 보수와 확장을 통해 연간 100만t의 하역 능력을 갖춤.
- 훈춘-북한 원정리-라진항을 잇는 도로가 지금은 대규모 물류 운송이 어려운 비포장 도로여서 동해 뱃길이 가동되지 않고 있지만 이달 말 이 도로 보수공사가 시작돼 올 연말 완공될 예정이어서 내년부터는 라진항을 통한 동해 뱃길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며, 이렇게 되면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항이나 철도에만 의존해온 지금과 달리 물류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어 훈춘을 비롯한 두만강 유역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곡물이 대거 남방으로 운송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뉴스는 전함.

● **美이어 EU도 내달 초 北식량평가팀 파견(5/29, 연합뉴스)**

-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이 다음 달 초 북한에 식량평가팀을 파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평가팀은 EU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사무국(ECHO) 직원들로 구성되며 미국 식량평가팀이 다음달 2일 조사활동을 완료한 이후 방북할 것으로 전함.
- 정부의 핵심 소식통은 29일 "미국의 식량조사 활동이 다음주 중으로 마무리되는데 이어 EU도 곧바로 평가팀을 보낼 예정"이라면서 "지금은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진행중인 단계이며 식량지원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함.
- 이에 따라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시기와 규모, 방법은 EU 평가팀의 조사활동이 마무리된 이후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 소식통이 전함.

다. 군사

● **"北, 보안취약국 경유해 이란과 불법무기 거래"(5/26,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보안이 허술한 제3국을 이용해 이란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교환해왔다는 유엔 전문가팀의 보고서가 나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보도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6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의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과 이란이 접경국가인 제3국을 통해 유엔이 금지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거래했다"고 전함.
-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자가 여객기로 보안이 취약한 제3국에 당도한 뒤 몰래 비행기를 바꿔 타고 이란으로 향했다는 내용임.
- 북한은 감시망을 피하려고 제3국을 거의 경유하지 않는 고려항공 대신 외국항공사 소유의 전세 비행기를 제3국으로 운항시켰으며 이란의 항공사 이란에어도 동원됐다고 RFA는 설명
- 유엔 보고서는 2009년 12월 태국 방콕에서 북한이 이용한 전세기가 압수됐으며, 이 전세기의 최종 목적지는 이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으며, 이때도 감시가 약한 제3국이 항로 변경을 묵인해줘 항공기가 무기거래 당사국으로 운항되는 식으로 불법 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고서는 덧붙임.
- 한편 보고서는 북한이 최근 들어 불법 금융거래를 숨기려고 물물교환과 현금거래를 늘리고 있다며 조선광업무역회사와 같은 유엔의 제재대상 기업들의 지시를 받는 일부 무역회사의 간부들이 이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함.

● **北, NLL인근 고암포 해군기지 완공 단계(5/29, 연합뉴스)**

-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인접한 북한의 고암포 해군기지가 완공 단계

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정부 고위 소식통은 29일 "북한이 황해도 고암포에 건설 중인 대규모 해군기지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면서 "공기부양정과 공기부양 전투함을 보관하는 육상계류장의 모습이 포착됐다"고 밝힘.
- 소식통은 "고암포 기지의 육상계류장은 전투기 격납고와 유사한 형태로 건설됐다"면서 "다음 달부터 공기부양정 및 공기부양전투함을 배치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
- 다른 소식통은 "한·미 정보당국이 고암포 기지 동향을 밀착 감시하고 있다"면서 "특히 군당국은 북한군이 고암포 해군기지를 새로운 '기습침투용 모(母)기지'로 운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대비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함.

2. 대외정세

가. 일반

中정협 부주석 "북중 친선은 피로 맺어져"(5/23, 조선중앙방송)
- 지난 21일까지 방북했던 천쭝싱(陳宗興) 중국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부주석은 "중조(북)친선은 불패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3일 전함.
- 천 부주석은 출국에 앞서 조선중앙통신과 가진 회견에서 "중조 두 나라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고 중조친선은 피로써 맺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
- 이어 그는 "중국의 노세대 혁명가들과 김일성 주석께서 공동의 위업 실현을 위한 투쟁 속에서 중조친선을 마련해 주셨다"며 "이 친선관계는 후진타오 총서기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깊은 관심 속에 날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함.
- 또한 그는 "중국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앞으로도 전통적인 중조친선의 강화발전에 적극 이바지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임.

캠벨 "대북문제 中역할 평가..분명한 입장 취해"(5/24, 연합뉴스)
-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 김정일의 중국 방문과 관련, 북한이 책임있는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도록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며 연합뉴스는 보도
- 국무부가 23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 중이던 캠벨 차관보는 지난 22일 도쿄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김정일의 방중과 관련, "정보를 가진 것이 없으며, 코멘트할 것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함.
- 캠벨 차관보는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평가한다"면서 "북한이 책임 있게 한국 및 국제사회와 관계하도록 유도하는데 중국이 매우 분명한 입장을 취하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고 밝힘.

"北 식량난 있지만 심각한 굶주림은 없어"(5/24, 연합뉴스)

- 북한의 식량 기근이 지난 3년 간 이어지고 있지만 올 들어 특별히 달라진 상황은 없으며 심각한 기아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연합뉴스가 보도
- 피터 휴스 북한주재 영국대사는 스웨덴, 일본, 네덜란드 대사관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국 채텀하우스에서 열린 강연에서 "세계식량계획(WFP)이 발표한 대로 매년 이어져 온 식량 문제가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심각한 기아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고 외교 소식통이 23일 전함.
- 이 소식통에 따르면 휴스 대사는 "특히 평양의 경우 기아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원산이나 다른 도시에서 기아가 발생했다는 소문이 있으나 그곳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으로부터 기아 조짐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함.
- 휴스 대사는 "북한은 바티칸에도 식량지원을 요청했으며 그 의도는 식량문제 해결과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함.
- 또한 "북한이 3남 김정은을 공식석상에서 내보였을 뿐 후계자로 공식 발표한 적은 없다"면서 "김정일이 사망할 경우 김정은의 경험 부족을 지적하며 국방위나 장석택 국방위 부위원장 등이 통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함.
- 휴스 대사는 "남북대화나 6자회담에 진전이 없을 경우 북한은 늘 그래왔듯이 향후 3개월 내에 추가 도발이나 특이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냄.
- 또한 "북한 정권도 재스민 혁명에 대해 염려하는 것은 사실이나 정보의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감시를 강화했고 극소수의 사람들만 중동사태에 대해 알고 있어 북한에서 유사한 혁명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진단했다고 뉴스는 전함.

로버트 킹 美인권특사 평양 도착(5/24, 조선중앙통신)

-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를 단장으로 하는 미국 국무부 대표단이 2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힘.
- 중앙통신은 대표단이 '북미 사이의 인도주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방북했다고만 언급했으며 일정 등은 알리지 않음.

美 "킹 특사, 北인권문제 제기할 것"(5/25,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북한 식량사정 파악을 위해 방북 일정을 시작한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북측에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국무부가 24일 밝힘.
-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킹 특사가 인권문제도 제기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북한 감옥에 수감돼 있는 미국시민(전

용수씨)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 기반 한 즉각적인 석방도 거듭 요구할 것"이라고 말함.

● **北, 억류 전용수씨 반년 만에 석방(5/2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지난해 11월부터 억류한 한국계 미국인 전용수씨를 석방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
- 중앙통신은 "조선을 방문한 로버트 킹 인권담당특사가 미국정부를 대표해 사건 발생에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며"앞서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도 관대하게 용서해줄 것을 거듭 요청한 것을 고려해 전용수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석방해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밝힘.
- 중앙통신은 "조사결과 전용수가 공화국을 반대하는 엄중한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본인도 자기의 범죄행위에 대해 솔직히 인정했다"고 주장했으나 전씨의 범죄행위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음.
- 이어 "그가 억류된 기간에 조선에서 미국의 이권을 대표하는 주북 스웨덴대사관 측의 정상적 영사접촉과 가족들과의 서신거래 및 전화통화를 보장해줬으며 건강상 문제로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도 해줬다"고 전함.

■ **기타 (대외 일반)**

- 美-러-나토의 '유럽미사일방위체계배비 협조문제토의'(5.3) 관련 " 현실은 전략적 이해관계의 모순으로 美-러의 대립과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고 주장(5/22, 중통 · 노동신문 · 중방)

나. 6자회담(북핵)

● **印尼 "7월에 6자회담 참가국 회동 주선"(5/26,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는 북핵을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7월에 6자회담 참사국간 회동을 주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
- 26일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마티 나타레가와 외무장관은 오는 7월 발리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기간에 6자회담 당사국인 남북한과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함.
- 24일 나타레가와 장관은 비동맹회의 외무장관회의 참석 차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박의춘 북한 외무상을 따로 만나 양국 무역 · 투자 증진 방안 및 비핵화 대화 재개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힘.
- 나타레가와는 "북한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하지만 어떤 전제조건도 없이 대화를 시작하자고 요구했다"고 전함.

● **北박의춘 "6자회담 조기재개 위해 노력"(5/27, 조선중앙방송; 신화통신)**

- 북한 박의춘 외무상이 6자회담 조기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

을 밝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7일 전함.

-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비동맹회의 외무장관회의에 참가 중인 박 외무상은 지난 25일 연설에서 "유관측들과 협력해 대화형식의 구애됨이 없이 6자회담의 조기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미, 북남사이에 적대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조성하고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로 나가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대화의 기본 취지"라고 말함.
-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5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정세 완화를 희망하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해 갈 것이며,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주장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
- 박 외무상은 이어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 경제 분야에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는 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있어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평화적 환경"이라며 "미국과 남조선 당국에 의해서 조선반도에는 전쟁접경에 이르는 폭발적인 정세가 주기적으로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
- 그는 "올해 우리는 어떻게 하든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일념으로부터 남조선 당국에 여러 갈래의 북남대화를 전제조건 없이 열고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고 덧붙임.

G8 "北, 6자회담 위한 구체적 조치해야"(5/27, 연합뉴스)

- 주요 8개국(G8) 정상들은 27일 북한의 도발행위를 비난하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정상들은 이날 프랑스 북부 휴양지 도빌에서 폐막한 G8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선언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백악관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상회담 선언문 전문을 발표
- 선언문은 "우리는 북한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기여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런 목표를 위해 힘쓰는 한국의 현재 노력에 지지를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 또 정전협정은 물론 여러 남북합의를 어기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위반하면서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및 경수로 건설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비난한다고 밝힘.
- 선언문은 북한에 대해 국제적인 의무 준수를 거듭 촉구하면서 국제적인 의무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탄도미사일을 포기하고 ▲납치문제 등 국제사회의 인도적 문제에 대한 우려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3. 대남정세

외교부 "北 책임있는 조치없어 상당히 유감"(5/24, 연합뉴스)

-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24일 "현재까지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전혀 보지 못하는 상태를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조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북제재 조치인 '5.24조치' 1주년과 관련해 "'5.24조치'가 내려진 과정에서 북한에 분명히 이 두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등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며 이같이 밝힘.

통일차관 "5.24 해제 열쇠는 북한 손에"(5/24, 연합뉴스)

- 엄종식 통일부차관은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북제재(5.24조치) 1주년인 24일 "5.24조치 해제의 열쇠는 북한 손에 있다"고 연합뉴스에 밝힘.
- 엄 차관은 이날 언론 기고문을 통해 "5.24 대북조치는 아직 진행형이며, 문제는 열쇠를 쥐고도 뒷짐을 지는 북한의 비타협적 태도"라며 이같이 말함.
- 이어 엄 차관은 "북한이 미래로 가려면 천안함 · 연평도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를 우회하려는 태도는 북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함.
- 또한 그는 5.24조치에 대해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면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취한 사실상의 첫 대규모 제재"라고 규정함.

김성환 외무 "북주민 · 통일 위해 北 비핵화 필요"(5/25,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김성환 외교통산부 장관은 25일 "북한 주민의 생활과 통일 기반을 닦기 위해 북한의 비핵화가 필요하다"고 전함.
-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광주 전남대에서 열린 '한국 외교의 비전과 청년들을 향한 바람'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외교부의 당면 과제로 들며 이같이 밝혔으며, 그는 "햇볕정책을 통해 많은 원조를 했지만 북한 주민들의 살림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며 "물자를 도와주는 것은 소비만 하고 개발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지적
- 또 "통일을 위해서도 비핵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통일 이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주변국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임.

'남북교역 결제업무' 취급은행 지정키로(5/25,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통일부는 25일 남북 교역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중은행을 상대로 '결제업무 취급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힘.
- 통일부는 이를 위해 이날 은행연합회를 통해 시중 18개 은행에 관련 내용을 공고했으며, 통일부는 그동안 외국환 거래가 가능한 18개 은행이 남북

교역과 관련한 대금결제를 해서 북측으로의 현금 유입 등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설명

李대통령 "통일 내일 될 듯이 준비해야"(5/25, 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와 자문위원 3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이대통령은 통일의 필요성과 원조 위주의 북한 지원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통일 후 맞닥뜨릴 정치와 경제,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상 준비된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
- "지금 남북은 지난해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로 어쩌면 상당히 간격이 있는 상황에 있다"면서 "이제는 북한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 언급함과 동시에 "그러면 우리 남북은 서로 대화를 하고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

'北송금 승인' 추진에 탈북자들 불만 고조(5/26, 연합뉴스)

- 국내 거주 탈북자가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할 때 통일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탈북자들이 거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 현재는 상거래에 수반되는 대금결제만 승인 대상으로 하지만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지난해 탈북자 39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9.5%가 대북송금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대북송금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남북간 금전이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이 개정안을 마련
- 그러나 탈북자들은 정부가 대북송금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승인권 행사로 탈북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하고 북쪽 가족의 신원 발각 위험만 높인다는 점을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통일부 "김정일 방중, 남북관계 영향 지켜볼 것"(5/27,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이 향후 남북관계와 북한의 태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힘.
- 천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1주일간의 김 위원장 방중에 대해 "북중 간의 외교적 활동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적극적 해석을 피하면서도 이같이 언급했으며, 이어 "정부는 천안함 · 연평도 사건과 비핵화 문제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이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함.

■ 기타 (대남)

- 李대통령의 訪獨'對北발언과 對北정책'을 "체제통일선언, 전쟁선언"이라고 왜곡 및 "추호도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持續비난(5/22, 중통·노동신문·평방)
- 北, '통일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訪北신청 불허' 관련 "반통일적 망동을 감행했다"고 비난(5/26, 중통·중방)

● 북한연구센터 제공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김정일 "6자회담 조기 재개해야"(5/26)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북핵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주장했음. 7일간의 방중을 마치고 26일 귀국길에 오른 김 위원장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정세 완화를 희망하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해 갈 것이며,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주장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음.
- 이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줄곧 성의를 보여 왔다"면서 "북한은 현재 경제 건설에 집중하고 있으며 매우 안정된 주변 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밝혔음. 김 위원장은 이어 "중국이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해온 점에 감사를 표시한다"고 언급했음.
- 그러나 김 위원장의 이런 언급은 6자회담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특히 한국·미국·일본은 그동안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로 ▲ 북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 ▲ 영변지구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들의 접근 등을 기대해왔으나, 이와 관련해선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음.
- 북중 정상회담에서 후 주석은 북핵 6자회담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비핵화의 기치아래 유관 각국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면서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하면서 북중 우호 강화를 강조했음.
- 후 주석은 "중국은 일관되게 북중 우의를 굳게 지키고 발전시켜나갈 방침"이라고 역설했음. 그러면서 북중관계 강화 차원에서 ▲ 고위층 교류 강화 ▲ 당·국가 관리 경험 교류 ▲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확대 ▲ 문화·교육·체육 교류 심화 ▲ 국제 및 지역 정세와 중대 문제에 있어서 소통·협조 강화 등의 5가지 방안을 제시했음. 후 주석은 이어 김 위원장의 방북 요청을 흔쾌히 수락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음.

北박의춘 "6자회담 조기재개 위해 노력"(5/27)

- 북한 박의춘 외무상이 6자회담 조기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7일 전했음.
-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비동맹회의 외무장관회의에 참가 중인 박

외무상은 지난 25일 연설에서 "유관측들과 협력해 대화형식의 구애됨이 없이 6자회담의 조기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미, 북남사이에 적대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조성하고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로 나가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대화의 기본 취지"라고 말했음.

- 박 외무상은 이어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 경제 분야에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는 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있어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평화적 환경"이라며 "미국과 남조선 당국에 의해서 조선반도에는 전쟁접경에 이르는 폭발적인 정세가 주기적으로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했음.
- 그는 "올해 우리는 어떻게 하든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일념으로부터 남조선 당국에 여러 갈래의 북남대화를 전제조건 없이 열고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고 덧붙였음.

靑 "6자회담 재개, 北 비핵화 진정성이 중요" (5/27)

-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6자 회담의 조기 재개를 촉구한 것과 관련, "6자 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야 하고,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북한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음. 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6자 회담 재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음.
- 청와대는 김 위원장이 방중 기간에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6자 회담의 조기 재개론을 들고 나온 데 대해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있음. 청와대 관계자는 "북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중국 측의 설명 내용에는 주목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면서 "특별히 평가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했음.

G8 "北, 6자회담 위한 구체적 조치해야"(5/27)

- 주요 8개국(G8) 정상들은 27일 북한의 도발행위를 비난하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음. 정상들은 이날 프랑스 북부 휴양지 도빌에서 폐막한 G8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선언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백악관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상회담 선언문 전문을 발표했음.
- 선언문은 "우리는 북한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기여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런 목표를 위해 힘쓰는 한국의 현재 노력에 지지를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음. 선언문은 또 정전협정은 물론 여러 남북합의를 어기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위반하면서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및 경수로 건설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비난한다고 밝혔음. 선언문은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음.

- 선언문은 북한에 대해 국제적인 의무 준수를 거듭 촉구했음. 그러면서 국제적인 의무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탄도미사일을 포기하고 ▲납치문제 등 국제사회의 인도적 문제에 대한 우려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음. 납치 문제가 G8 정상의 선언문에 포함된 것은 납북자 문제를 중시하는 일본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나. 미 · 북 관계

"방북 美식량평가팀, 내달 2일까지 현장조사"(5/24)

- 24일 방북하는 미국의 북한식량평가팀이 내달 초까지 식량 수요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음. 복수의 외교소식통은 이날 "로버트 킹 미국 대북 인권특사가 이끄는 식량평가팀이 북한에서 여러 그룹으로 나눠 활동할 것으로 안다"면서 "킹 특사는 28일까지 평양에 머물고 전문가 그룹은 지방에서 다음달 2일까지 조사활동을 진행할 것 같다"고 밝혔음.
- 방북팀은 킹 특사,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 해외재난지원국의 존 브라우스 부국장 등을 포함해 8명 정도로 구성됐고 중국 베이징에서 항공편으로 평양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음.
- 킹 특사와 브라우스 부국장 등은 평양에서 북한 외무성의 리근 미국국장을 비롯한 당국자들을 만나 분배모니터링 문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임. 또 식량전문가들은 별도 일정에 따라 내달 2일까지 북한 자강도와 함경남도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음.
- 미국 정부는 킹 특사의 방북 이후 한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 대북식량 지원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임. 미국의 식량지원 재개는 교착상태인 한반도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이동하는 데 탄력을 줄 것으로 예상돼 주목됨.

美, 北 무기개발 지원기업 제재(5/25)

- 미국 정부는 24일 북한과 이란, 시리아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외국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음. 국무부는 이날 "'이란 · 북한 · 시리아 비확산법(INKSNA)'에 따라 지난 23일자로 14개 외국기업과 2명의 외국인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다"면서 북한(기업 1개)을 비롯해 중국(개인 1명, 기업 4개), 벨라루스(기업 2개), 이란(개인 1명, 기업 4개), 시리아(기업 2개), 베네수엘라(기업 1개) 등이 포함됐다고 발표했음.
- 한 기업 가운데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안 1718호와 1874호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던 조선단군무역회사가 제재 대상에 올랐음. 단군무역은 북한 제2과학원 산하기관으로, 핵 및 미사일 연구와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과 기술획득 책임을 맡고 있는 곳임.
- 국무부는 "이번 제재는 이들 기업과 개인이 북한, 이란, 시리아와 다자간 수출통제 리스트에 올라있는 무기 관련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거

나 향후 WMD 및 미사일 시스템 개발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음. 이번 제재는 2년간 지속되며, 미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 기간에 이들 기업이나 개인과는 어떤 거래, 지원, 허가도 중단하게 됨.

北조평통 '고엽제 매립' 미국 맹비난(5/26)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6일 서기국 보도를 통해 "미제침략군의 고엽제 매몰사건은 천추에 용납 못할 특대형 범죄행위"라고 비난했음.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평통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이 유독성 화학물질인 고엽제를 미군기지 안에 몰래 대량 파묻는 사건이 드러나 온 민족의 커다란 격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고엽제 매몰사건을 치솟는 민족적 분노를 안고 준열히 규탄한다"고 밝혔음.
- 조평통은 "미국은 이미 1960년대 말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 고엽제를 대대적으로 살포했다"며 "이번에 드러난 고엽제 매몰사건은 미군의 범죄적 만행이 조직적 범죄이며 세기와 연대를 이어오며 오늘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만행이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성토했음. 이어 "남조선 야당을 비롯한 각계와 언론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남조선 강점 미군철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남조선 인민들은 불행과 재앙만 가져다주는 미제침략군을 하루빨리 내쫓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음.
- 조평통은 북한의 대남 입장을 성명과 담화, 서기국 보도, 비망록 등 다양한 형태로 내보내고 있음.

美 "인도적 지원은 정책과 관계없어"(5/26)

- 미국 국무부는 25일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 "인도적 지원프로그램은 다른 정책 결정 또는 다른 정책들과는 어떤 연관도 없다"고 거듭 밝혔음.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식량지원 문제와 6자회담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식량지원은 정책 결정과는 상관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 그는 북한을 방문 중인 평가팀의 방북 활동이 끝나면 결과를 분석한 뒤 식량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것이며, 식량지원이 이뤄질 경우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량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모니터링이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음.

〈美, '전용수 석방' 불구 北변화 압박〉(5/28)

- 미국은 27일 북한에 6개월째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전용수씨를 석방키로 북한이 결정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하면서도 이번 조치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임을 시사했음. 이는 국무부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씨 석방은 인도적 차원의 문제이며, 6자회담 재개 등 한반도 정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 등 북한의 진정성 있는 행동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서도 확인됨.

– 마크 토너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번 조치에 대해 "긍정적 조치"라면서도 "좀 더 넓은 차원에서, 다른 문제들에 대한 조치에 앞서 무엇보다 먼저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북한이 나서기를 원한다"고 밝혔음. 그는 '전씨 석방이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변화시키지) 못한다"면서 "우리는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국 시민이 석방된데 대해 행복해 하지만, 다른 영역에서 (북한의) 구체적 행동들을 여전히 원하고 있다"고 말했음.
– 이런 언급은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이 만족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6자회담 재개나 북미대화 등 다른 국면으로 전환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하는 것임. 미국은 앞서 북한의 김정일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주장한데 대해서도 전날 "우리의 입장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라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도발적 행동 중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 미국은 또 전씨 석방과 미국의 향후 대북 식량지원 결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음. 토너 부대변인은 현재 미국의 대북식량상황 평가팀이 북한을 방문 중인 상태로, 이들이 귀국해 자체 평가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WFP(세계식량프로그램) 평가결과 등과 비교한 뒤 식량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음.
– 하지만 미국의 이런 부인에도 불구하고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의 방북을 통해 북한이 전씨를 석방하고 미국은 식량지원을 부분적으로 재개하는 북미간 '거래'나 최소한의 공감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을 일각에서는 여전히 제기하고 있음.

로버트 킹 · 전용수씨, 베이징 도착(5/28)

– 북한의 식량 사정 실사 차원에서 방북했던 로버트 킹 인권담당특사와 북한에 6개월간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전용수씨가 28일 평양을 출발해 베이징에 도착했음. 킹 특사와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한국 시각 11시)께 북한 고려항공 정기편으로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도착했음.
– 전씨는 평양에서 킹 특사와 함께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입국장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음. 킹 특사는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 취재진을 만나 "미국 시민인 전씨가 석방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하루 이틀 안에 전씨가 가족들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전씨는 이날 베이징 서우두공항에서 환승을 해 곧바로 부인이 있는 서울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음. 전씨가 이후 서울을 거쳐 미국으로 곧바로 향하게 될지는 확인되지 않았음. 미국 대사관 측은 전씨가 베이징에 도착했는지를 포함, 그와 관련한 일체의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음. 60대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과 북한을 오가며 사업과 기독교 선교활동을 함께해온 것으로 알려진 전씨는 작년 11월 북한에서 체포돼 6개월간 억류돼왔음.
– 킹 특사는 이어 "북한 외무성 관계자들과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논의했다"면서도 "식량과 관련해서는 어떤 협상이나 합의도 없었다"고 강조했음. 킹 특사는 북한에서의 논의 내용을 곧 워싱턴에 보고하게 될 것이라

며 일부 식량 수요 평가팀은 다음 주까지 북한에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음.

다. 중 · 북 관계

〈첨단산업 · 관광 망라된 北라선 · 황금평'청사진'〉(5/23)

- 23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조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계획 요강'은 북한이 중국과 경제협력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온 두 지역의 개발 청사진을 담은 것으로 평가됨. 요강에 따르면 라선 · 황금평 지역은 자동차, 휴대전화, 농업, 관광, 물류, 화학 등의 업종을 망라하는 종합 산업단지로 육성될 방침임. 또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황금평지대특별법에 따라 기업과 노동자 간 자율적 노동계약, 외국인 투자자의 은행 설립 등 시장경제 원리가 대폭 적용됨. 두 지역의 개발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구체적으로 가늠할 수 없지만 북한의 경제개발 · 개방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됨.
- 북한과 중국은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 라진-선봉-웅상-굴포로 이어지는 산업벨트에 모두 10개의 공업단지를 세운다는 구상임. 라진지역에 창고보관 · 물류, 장비제조, 첨단기술, 피복 · 식료품가공 등 4대 공업단지를 건설하고 선봉지역에도 원자재공업, 방직피복, 장비제조업, 농산물가공 등 4대 공업단지를 배치할 계획임. 또 웅상지역에는 제지, 가구, 연필, 합판 등을 제조하는 종합 목재가공공단을 만들고 굴포 지역의 경우 채소, 임업, 과수업 등 고효율농업시범구를 조성함. 특히 선봉지역에는 단기적으로 화물자동차조립공장을 만든 뒤 일용금속제품, 건설용금속자재, 자전거 등 경공업 기계제품을 발전시키고 라진지역에는 수만t급 도크를 건설하고 선박수리 및 제조업무를 진행할 계획임.
- 라진지역의 첨단기술산업에는 컴퓨터, 통신설비, 휴대전화, 가정용 전기제품 등의 전자공업과 의약품과 인삼을 비롯한 약초재배 등이 포함함. 또 라선지역을 장기적으로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도 눈에 띔. 단기적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 접경지역의 민속 문화를 비롯해 섬, 해안가, 강, 호수 등의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라선지역에 호텔, 휴양지, 관광도로 등 관광기초시설을 세울 계획임.
- 장기적으로는 중국 옌볜, 북한 라선 · 청진 · 칠보산 · 금강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 사할린, 일본 나카타 · 삿포로, 한국의 속초 · 부산 등을 잇는 동북아시아 관광코스를 개발해 세계적인 관광경제권을 형성할 계획이라고 요강은 전했음. 이와 함께 자원개발 및 광물기지, 시멘트 생산, 화학공업 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고 동북아지역의 물류중계를 위한 창고보관 · 물류시설도 육성됨.
- 황금평 지역의 경우 상업센터 및 정보산업, 관광문화산업, 현대시설농업, 가공업 등 4대 산업단지가 조성될 방침임. 구체적으로 정보산업은 황금평경제지대와 중국 단둥시의 정보산업을 연계하고 관광문화산업으로는 아리랑 등을 주제로 한 문화공연, 만화, 영화음악, 공예품, 회화 등을 중

점 개발함. 또 고효율물절약농업시범기지, 현대 농업기술연구센터 등이 건설되고 북중 공동시장을 시작으로 첨단 상업센터도 만든다는 구상임.

- 라선과 황금평 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한 광범위한 육·해상 교통로와 전력을 구축한다는 계획임. 우선 라선지역은 '1중추, 3방향, 5통로' 방식으로 개방된 교통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임. 라진항에 종합적인 항구로를 건설하고 기존 1~3호 부두시설을 개조하는 한편, 단기적으로 5만t급 이상의 다용도 선착시설을 건설함. 또 석탄발전소를 건설해 기존의 선봉 화력발전소의 중유발전기를 대체하고 풍력발전, 태양열발전 등을 연구하는 한편 110KV 변전소와 송전선로 설치도 포함됐음.
- 정보통신의 경우 이동통신망 등의 기초시설을 만든 뒤 국제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임. 황금평 지역에서는 항구, 도로 건설 외에 단둥에서 직접 전력선로를 끌어와 배전망을 건설하고 인터넷, 이동통신망도 설치함.
- 북한과 중국은 다양한 협조채널을 구축해 라선·황금평 개발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음. 북한과 중국은 공동지도위원회(정부 간 협조체계)-공동개발관리위원회(지방정부 참여, 라선·황금평 각각 설치)-투자개발공사(라선·황금평 각각 설치) 등 3단계 협조체계를 만들기로 했음.
- 공동지도위원회는 양국이 개발협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이나 원칙적 문제들을 조정·협상하는 역할을 하게 됨. 또 공동개발관리위원회는 두 경제지대의 투자유치, 기업설립, 환경보호 등의 관리권을 행사하고 토지개발, 상업개발, 기초시설운영방안 등을 심사함. 투자개발공사의 경우 공동위원회의 위임으로 토지 및 해안선 개발, 상업개발을 책임지고 투자권, 경영권, 수익권을 누릴 수 있게 했음.
- 북한과 중국은 시장주의적 세무·금융정책 등을 통해 라선·황금평 지대에 대한 외국기업의 유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음. 세무정책의 경우 두 경제지대에서 세금반환정책을 실시하고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설비·물자와 가공한 제품의 수출 관세가 면제됨. 토지의 경우 사용기한 내에 양도, 임대, 재임대, 청부, 저당, 상속을 할 수 있음.
- 금융 정책에서는 기업이 중국 인민폐와 북한 원, 그리고 별도로 규정하는 화폐로 결제하는 것을 허용했음. 특히 외국인 투자가가 단독은행, 합영은행과 다른 금융기구를 설립하고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한 점이 눈에 띔. 또 기업과 노동자들이 자율적으로 노동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음. 나아가 개발계획요강은 기업경영과정에서 인력의 채용과 해고, 제품 판매가격, 파산, 청산 등의 기업행위를 시장원칙에 따라 자주적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했음.
- 투자보호 정책으로는 외국투자가가 이윤 및 자산을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가의 투자와 자산은 국유화하거나 징수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명시됐음. 또 업종별 입주허가정책을 제정함으로써 투자분야와 업종에서 라선·황금평지대법과 정책이 명백히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한받지 않음.

〈김정일訪中〉 장쩌민과 오늘 만찬 한 듯(5/23)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23일로 나흘째를 맞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과 이날 만찬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음. 현지소식통은 "김 위원장과 장 전 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장쑤성 예술단의 공연을 겸한 만찬이 오늘 저녁에 펼쳐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음. 현지에서는 김 위원장이 양저우(揚州)에 오후 8시(한국시간 오후 9시) 즈음에 도착하는 바람에 만찬을 늦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아울러 특별열차로 3천㎞를 '무박3일'간 달려온 70세의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과 병원을 들락거리는 것으로 알려진 84세의 장쩌민 전 주석의 건강상태를 감안해 만찬을 연기했다는 추론도 있음. 또 당초 김정일 위원장의 양저우 일정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진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싱가포르의 리콴유 초대 총리를 만났다고 신화통신 등이 보도함에 따라 양저우에 가지 않았거나, 갔었다고 하더라도 이날 오전 중에 상경했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김정일 위원장 방중 수행단이 70여명으로 알려져 무단장, 장춘 등에서는 의전승용차량이 20대를 넘지 않았으나 양저우에서는 60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장쩌민 전 국가주석을 포함한 중국 중앙과 지방의 지도부가 합류하고 있음을 알렸음.

〈김정일訪中〉 닷새째, 일단 난징 도착(5/24)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4일로 방중 닷새째를 맞는 가운데 일단 이틀간 묵었던 장쑤(江蘇)성 양저우(揚州) 영빈관을 출발해 난징(南京)에 도착했음. 김 위원장 일행은 이날 오전 8시 32분(한국시간 오전 9시 32분)께 무장경찰차의 선도로 40여대의 차량 편으로 이동해 양저우 역으로 가지 않고 2시간 가까이 달려 난징 둥자오(東郊)빈관에 도착해 여장을 풀었음. 김 위원장이 여기서 숙박을 할지는 불투명함.
- 이날 새벽부터 양저우 역에서 대기 중이던 특별열차도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이동해 난징역으로 향했음. 그러나 난징에서 김 위원장이 어디로 향할지는 관측이 쉽지 않음. 현재로선 남행과 북행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지적임. 현지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의 특징은 과거 여섯 차례 방중을 통해 둘러봤던 도시를 다시 찾으면서 미처 보지 못했던 곳을 찾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특별열차가 난징에서 어디로 가는 지를 봐야 차후 행선지를 점칠 수 있다"고 말했음.

〈김정일訪中〉 경제시찰 행보 눈길 (5/24)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방중 닷새째인 24일까지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방문지마다 산업시설 시찰을 빼놓지 않고 있어 눈길을 끔. 김 위원장은 방중 이틀째인 21일 창춘(長春)의 이치(一汽)자동차 공장을 방문한데 이어 23일 양저우(揚州)에서 한장개발구의 태양광설비 제조업체 화양타이양넝(華揚太陽能)과 대형할인마트, 24일 중국 최대 전자업체 판다전자(熊猫電子), 청소년올림픽 주경기장 등을 차례로 둘러봤음.

- 이치자동차는 중국 최초의 자동차회사로 현재 독일 폴크스바겐과 공동으로 이치폴크스바겐을 설립해 기술을 이전받고 있는 대표적인 자동차 생산업체임. 한장개발구는 수치제어금속판재가공설비산업과 태양광 및 풍력발전설비 제조, 생물·의약·보건식품 등 3대 산업군을 주축으로 2001년 9월 설립된 후 최근 신재생에너지분야에 대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공업단지임. 화양타이양넝은 중국 3대 태양광설비 생산업체임. 대형마트는 양저우 영빈관 인근에 위치한 일반적인 마트였음. 판다전자는 1936년 설립된 중국 전자공업의 요람으로 꼽히는 유명 기업으로 지난 20년 연속 중국 IT업계 최고 기업으로 선정될 정도로 중국을 대표하는 전자 브랜드로 꼽히고 있음. 올림픽 주경기장은 올해 난징에서 개최되는 청소년 올림픽을 위해 건설되고 있는 체육시설임.
- 김 위원장이 방문한 산업시설들은 모두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중국의 빠른 발전상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북한도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이치자동차는 1959년 처음 자체 브랜드 자동차를 설립한 후 50여년 만에 자동차 왕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장개발구는 외국인 투자가 경제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입증하고 있음. 특히 화양타이양넝은 금융위기 후 화석연료의 높은 의존도에서 탈피하고 그린에너지를 추구하는 세계적인 조류를 잘 반영하고 있으며, 대형할인마트는 생필품 부족에 허덕이는 북한에 시장경제의의 우수성을 느끼게 해줬을 것으로 평가됨. 판다전자는 중국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기업으로 산업화로 나아가야 할 북한에 하나의 좌표가 됐을 것이라는 분석임.

〈김정일訪中〉 中누리꾼들 노골적인 비호감(5/24)

- 중국 누리꾼들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문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시하고 있음. 24일 중국 최대 인터넷 포털 바이두(百度) 등에 따르면 누리꾼들은 지난 20일 이후 김 위원장의 행적을 주시하면서 긍정적인 의견은 거의 없이 부정적인 내용들을 쏟아내고 있음.
- 누리꾼들은 김 위원장을 '김태양' '빨랫방망이' '뚱보' 등으로 비꼬는가 하면 그의 방중으로 인해 중국의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교통과 일반인의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음.
- 모모샤오싱(某某小星) 아이디의 누리꾼은 "김정일 난징(南京)에 도착했나보다. 중산(中山) 동로가 모두 봉쇄됐다"고 전했음. 스이류차오(失憶六朝) 누리꾼은 "뚱보엔 관심 없다"고 표시했고 친화이취야쥐러팡(秦淮區雅居樂旁) 누리꾼은 "얼마나 큰 인물 이길래? 난징의 교통이 이렇게 심하게 방해받은 것을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는 글을 올렸음. 자이지푸다수(宅基腐大叔) 누리꾼은 "빨랫방망이야 안녕, 다음에 보자"라며 빈정거렸음. 빨랫방망이는 일제시대 일본 경찰의 하수인 역할을 하던 한국인들이 부족한 경찰봉 대신 빨랫방망이를 허리에 차고 다니며 중국인을 괴롭혔다는 데서 한국인을 비하하는 용어로 누리꾼들 사이에 애용되고 있는 단어임.

김정일 베이징 도착, 조어대 여장(5/25)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5일 오전 베이징(北京)에 도착했음. 김 위원장을 태운 특별열차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께 베이징역에 도착해 곧바로 준비된 의전차량 편으로 댜오위타이(釣魚臺)으로 향했음. 이들 의전차량은 오전 9시 17분께 댜오위타이에 진입했음.
- 김 위원장은 관례로 볼 때 외국 정상급 지도자들이 묵는 댜오위타이 18호각에 여장을 풀 것으로 예상됨. 앞서 김 위원장을 태운 특별열차는 24일 오후 2시 5분(한국시각 오후 3시 5분)께 난징(南京)역을 출발, 장쑤(江蘇)성 쉬저우(徐州)와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을 거쳐 19시간을 달려 베이징에 들어왔음.
- 김 위원장이 이처럼 오전 시간대에 도착함에 따라 이날 중에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의 북중 정상회담을 할 게 유력해 보임. 또 김 위원장이 베이징 방문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도 별도로 정상회담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날 중에 원 총리와의 회담 가능성도 있음.

〈김정일訪中〉 북중 정상회담 종료(5/25)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2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담에서 3시간이 넘는 정상회담과 만찬을 했음. 이날 오후 5시 30분(한국 시간 오후 6시 30분) 즈음에 시작된 정상회담은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김 위원장과 중국 수뇌부는 만찬을 갖고서 오후 8시 45분께 인민대회당을 빠져나왔음. 김 위원장 일행은 의전차량 편으로 다시 댜오위타이(釣魚臺)로 돌아왔음.
- 앞서 이날 오전 9시께 베이징역에 도착해 댜오위타이에서 여장을 푼 김 위원장은 의전차량 편으로 인민대회당에 오후 5시를 넘겨 도착해 정상회담 수순에 들어갔음. 정상회담에서는 우선 두 정상이 각각 자국의 사정을 소개하면서 상대국을 칭찬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음.
-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경제시찰을 통해 본 중국 개혁개방의 눈부신 성과를 극찬하고, 후 주석은 북한이 최근 적극적으로 나서는 개혁개방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식으로 화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두 정상은 이어 북중 경협, 북한 후계구도, 북핵 6자회담, 국제 및 지역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음.
- 정상회담에는 그간 관례로 볼 때 중국 측에서 시진핑(習近平) 부주석,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등이, 북한 측에서는 최태복 당비서, 강석주 내각 부총리 등이 배석했을 것으로 관측됨. 정상회담후 만찬에서는 해외순방중인 우방궈(吳邦國)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음.

황금평 · 라선특구 착공식 전격 취소(5/26)

- 이달 말 예정됐던 황금평과 라선특구 개발 착공식이 전격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음. 황금평과 라선특구는 북한과 중국이 합작개발하기로 한 양국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북 · 중 정상회담을 끝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귀국길에 오르는 시점에 착공 연기설이 나온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연변(延邊)조선족 자치주의 한 소식통은 26일 "오는 30일 라선특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훈춘(琿春)-라진항 도로보수 공사와 라선특구 내 일부 중국기업 공장 착공식이 취소됐다"고 밝혔음. 그는 "북한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북한이) 취소 요청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고 말했음.
- 황금평 개발 착공식도 애초 예정됐던 28일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음. 단둥의 한 소식통은 "28일 황금평 개발 착공식이 취소됐다"고 밝혔음. 그는 "백지화한 건 아니고 2-3일 늦춰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열리더라도 애초 계획됐던 것처럼 '큰 손님'들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음.
- 오는 27, 28일 이틀간 투숙 예약을 받지 않았던 단둥(丹東)의 크라운호텔도 예약을 재개했음. 황금평 개발 착공식에 참석하는 북한 측 인사들이 투숙할 것으로 알려진 이 호텔은 예약이 완료됐다는 이유로 지난 19일부터 27, 28일 예약을 받지 않았었음. 호텔 관계자는 "28일 잡혔던 행사가 취소돼 이달 말 언제든 투숙할 수 있다"고 말했음.
- 착공식 날짜가 김 위원장의 귀국 예상 시점과 맞아떨어지면서 북 · 중이 김 위원장 방중 기간 황금평과 라선특구 합작개발을 둘러싼 '통 큰' 합의를 이뤄낸 뒤 이를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준비한 '이벤트'라는 분석이 나왔음.
- 그러나 북 · 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 김 위원장이 귀국길에 오른 시점에 맞춰 착공식 연기설이 불거지면서 양국 간 경협을 둘러싼 협상이 매끄러운 결말을 보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예컨대 황금평과 라선특구에 대해 소극적인 민간 기업을 대신해 중국 당국이 직접 투자에 나서달라는 북한의 요청에 중국이 시장경제 원리를 내세워 난색을 보였고 이에 맞서 북한도 훈춘-원정리-라진 구간 고속도로 개설 등 중국의 요구에 불응하지 않았겠느냐는 얘기임.
- 그러나 극비리에 부쳐지는 김 위원장의 방중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착공식 일정이 잡혔다가 단순히 순연된 것이어서 착공식 취소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착공식 자체가 김 위원장의 방중 계획 보안 유지를 위해 외부 시선을 다른 곳으로 쏠리게 하려고 계획된 '허구성 이벤트' 아니었겠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음.

〈김정일訪中〉 김정은 안간 듯…후계체제는 논의(5/26)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이 마무리된 가운데 후계자 김정은의 이름과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음.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 위원장의 방중 수행단 명단을 공개했지만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이름은 들어있지 않았음.

– 김정은은 작년 9월 당 대표자회에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부여받고 모습도 공개해 후계자로 공식 데뷔했다는 점에서 이번 방중 공식수행단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수행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임.

– 이에 따라 김정은은 북한에 남아 권력 2인자로서 김 위원장의 부재로 인한 권력 공백상황을 책임지면서 국정 운영을 대리했을 것으로 분석됨.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후계체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임. 중앙통신은 "최고영도자들께서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선 조중친선협조관계를 대를 이어 계승하고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남이 대신할 수 없는 공동의 성스러운 책임과 확고부동한 립장이라는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했다"고 밝혔음.

– 특히 후 주석은 "중국 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두 나라 노세대 혁명가들의 고귀한 넋이 어려있는 전통적인 중조친선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가는 데서 역사적 책임을 다해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음. '대를 이은 계승' '바통' 등의 표현을 통해 김정은 후계체제가 본격 출범하더라도 중국의 정치·경제·외교적 후원이 계속될 것임을 약속한 셈임.

〈김정일訪中〉 軍 대신 당 실세들이 수행(5/26)

– 20일부터 26일까지 이뤄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일곱 번째 중국 방문은 매제인 장성택 당 행정부장 등 실세들이 수행했지만 군(軍) 인사는 눈에 거의 띄지 않았음. 26일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에는 김기남·최태복 비서와 강석주 내각부총리, 장성택 당 행정부장 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일·박도춘·태종수·문경덕 비서,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 등 11명이 수행했음. 이들 중 가장 눈에 띄는 이는 지난해 5월 방중에 처음으로 수행단에 포함된 후 그해 8월과 이번까지 세 차례의 방중을 모두 수행하며 실세의 위상을 과시한 장성택임.

– 특히 장성택은 외자유치 창구인 북한 합영투자위원회를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방중에서 양국 정상 간의 경제협력 방안 논의를 도왔을 것으로 보임. 장성택은 김정은 후계체제의 안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북한 권부 내 실세 중의 실세로 꼽힘. 장성택의 수행은 김정은 후계구도에 역사적 정통성을 확보하고 선전선동을 총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김기남 비서의 수행과 맞물려 이번 방중기간에 김정은 후계체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짐작케 함.

– 6자회담 재개 등 동북아시아 정세와 관련해 강석주 내각부총리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중국에 따라간 것도 눈길을 끔. 6자회담과 대미외교를 총괄하는 강 부총리는 지금까지 2000년 5월만 빼고 김 위원장의 여섯 차례 방중을 수행한 '단골멤버'이며,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은 중국을 따로 오가다 이번에 방중 수행단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음.

– 김정은 후계체제가 등장하면서 주목받았던 인사들 가운데 박도춘·태종수·문경덕 비서와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이 김 위원장을 따라 중국에

간 것도 흥미로움. 태종수는 함경남도의 책임비서였던 지난해 5월부터 1년새 세 차례의 방중에 모두 수행단의 일원으로 따라나섰으며, 문경덕과 주규창 역시 이번 수행단에 포함됨으로써 후계체제 안착에 주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뒷받침했음.

- 그간 김 위원장의 6차례 방중 가운데 다섯 번을 수행했던 북한 군부의 대표적 '중국통'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은 이번 수행단에서 빠졌음. 김영춘 뿐만 아니라 장성택을 제외하고는 수행단 면면을 보면 군 직책이 없는 '당 인사'라는 점도 주목할 만함.
- 한편 이번 방중에 김 위원장의 4번째 부인 김옥으로 추정되는 여성도 동행한 것으로 보임. 이 여성은 김 위원장과 리무진에 나란히 앉아 있다 하차하는 모습이 중국 누리꾼의 동영상에 잡혔고 26일 중국 CCTV가 내보낸 만찬 장면에서도 헤드테이블 끝부분에 앉아 있었음.

〈김정일訪中〉 베이징역 출발..귀로 오른 듯(5/26)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태운 특별열차가 26일 오후 2시 17분(한국시간 오후 3시 17분)께 베이징(北京)역을 출발해 북쪽으로 향했음. 특별열차는 일단 선양(瀋陽)과 단둥(丹東)을 거쳐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열차가 통상 시속 70㎞ 이하로 달리는 점을 감안하면 27일 새벽 시간대에 북한에 진입할 것으로 보임.
- 이전 방중에서도 김 위원장은 귀로에 베이징을 들러 북중정상회담을 하고서 대개 귀국길을 택했음.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이 이번 방중에서 예상을 깬 행선지 선택이 많았다는 점에서, 다른 도시를 거쳐 경제시찰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현재 선양역에는 별다른 경계경비가 펼쳐지지 않고 있으나 특별열차가 통과할 압록강변의 단둥 중롄호텔은 27일 하루 예약을 받지 않고 있음.
- 앞서 김정일 위원장은 이날 오전 리커창(李克强) 상무부총리와 류치(劉淇) 베이징시 당서기의 안내로 베이징 중관춘(中關村)의 정보통신 서비스 업체인 선저우수마(神州數碼)를 방문하는 모습이 목격됐음. 김 위원장은 지난 2004년 4월 방중 때에도 중관촌을 둘러봤었음. 김정일 위원장의 방문을 목격한 선저우수마의 한 직원은 "김 위원장의 건강이 어때 보였느냐"는 연합뉴스 특파원의 질문에 "걸음걸이도 부자연스럽지 않고 전반적으로 건강이 괜찮아 보였다"고 답했음.
- 이어 김 위원장은 다오위타이로 돌아와 오찬을 하고서 이날 오후 2시 즈음 의전차량 편으로 다오위타이를 빠져나와 베이징역으로 향했음. 이로써 김정일 위원장은 7번째 방중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임.

〈김정일訪中〉 후계구도 거론 있었나 없었나(5/27)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번 방중에서 큰 관심은 북한의 후계 구도에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어떤 언급을 할지에 모아졌음.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후 주석이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우선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이 26일 발표한 보도에서도 그와 관련해선 직

간접적인 표현이 전혀 없음. 다만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후 주석이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전통적인 중조친선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가는 데서 역사적 책임을 다해갈 것"고 말했다고 보도했음. 그러나 이는 상투적인 표현으로, 북중 관계에서 늘 써온 레토릭이라는 점에서 이를 후계구도 지지와 연관시키기는 힘들다는 지적임.

- 또 조선중앙통신이 "최고 영도자들이 조중친선 협조 관계를 대를 이어 계승하고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남이 대신할 수 없는 공동의 성스러운 책임과 확고부동한 입장이라는 데 대해 견해를 같이했다"고 전하고 있으나, 이를 후 주석의 발언이라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북중 양국이 이번 회담에서 '뜨거운 감자' 격인 후계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비켜간 것으로 보고 있음.
- 사실 이번 방중에서 김 위원장이 일반의 예상을 깨고 창춘(長春)에서 양저우(揚州)까지 무려 2천여㎞를, 30시간 가까이 달려가면서 후계 구도와 관련한 북중 논의 여부가 관심사로 부각됐음. 그다지 좋지 않은 건강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먼 길을 달려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을 만나러 간 것으로 보이는 것은 후계구도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기 때문임.
-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중국의 제4세대 지도부가 김정일 위원장의 삼남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차기 지도자로 공식 인정하는데 주저하는 기색을 보이면서 장 전 주석을 '우군'으로 만들어야 할 속사정이 있었다는 것임. 김 위원장이 후 주석 중심의 공산주의청년단(공천단) 계열과 '대립'하는 상하이방의 리더 격인 장 전 주석을 찾은 것은 차기 최고지도자로 유력시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상하이방 계열이라는 현실적인 계산을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음.

中, 北라진 도로보수 이달 말 착공 확인(5/27)

- 북한의 원정리와 나진항 간 도로 보수공사가 5월 말에 착공될 것이라고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27일 지린(吉林)성 정부 인터넷 사이트를 인용해 보도했음. 지린성에 따르면 이 공사는 중국과 북한 협력 개발 중인 라선지구의 중점 사업으로, 북중 무역협력과 두만강 지역 국제합작개발 사업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임.
- 이 도로는 북쪽으로는 중국 훈춘(琿春) 취안허(圈河)통상구와, 남쪽으로는 북한의 라진항과 연결되며 전체 길이는 53.5㎞이고 공사비는 1억5천만 위안이 소요될 전망임. 공사비는 중국 측에서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음. 공사에서는 노반, 교량, 배수로 등을 개보수하게 될 예정이며 시멘트 도로로 만들 것으로 전해졌음.
- 계획대로라면 해당구간에서 차량들이 시속 40㎞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원정리-나진항 도로는 북한 라선 특구 내의 중요 교통로로서, 중국의 동북3성의 물류를 북한 동해로 뺄 수 있는 주요 통로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는 지적임.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원정리-라진항 도로 보수공사 착공식이 취소됐다는 보도가 26일 나온데 이어 그럼에도 해당공사는 이달 말에 시작될 것이

라고 지린(吉林)성 정부가 27일 확인하고 나선 점에 주목하고 있음.

- 이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원정리-라진항 도로보수 공사의 착공식을 '성대하게' 개최해 동북3성과 북한 간 경협 활성화의 기폭제로 삼으려 했으나, 예상치 못하게 착공식 취소로 이어져 북중간 라선 특구 합작 개발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으로 비쳐지자 지린성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김정일-원자바오, 경제정상회담 별도 개최(5/27)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번 방중 기간 사실상 처음으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별도의 '경제정상회담'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음. 27일 중국 관영 중앙(CC)TV의 김 위원장 방중 기록영상을 분석한 결과 김 위원장은 25일 숙소인 댜오위타이(釣魚臺)를 찾은 원 총리와 확대정상회담 형태의 정식 회담을 한 것으로 밝혀졌음.
- 25일 댜오위타이에서 이뤄진 김 위원장과 원 총리와의 회담에는 양국 고위관료와 당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음. CCTV 영상에는 김 위원장을 가운데 두고 강석주 부총리,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태종수 · 박도춘 · 문경덕 · 김영일 당 비서가 배석한 모습이 포착됐다. 북한 측 인사는 김 위원장과 통역을 포함해 총 8명이었음.
- 중국 측에서는 원 총리가 중앙에 자리잡고 양제츠(楊潔篪〈兼대신虎들어간簾〉)외교부장,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 류훙차이(劉洪才) 주북 중국대사 등이 배석했다. 중국 측 참석자는 원 총리와 통역을 포함해 총 9명이었음.
- 26일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압록강신대교 건설을 예로 들어 최근 북중 간 경제무역 협력이 많은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서 협력 수준을 새로운 높이로 격상하자고 제안했음. 원 총리는 지방과 기업의 적극성을 더욱 이끌어내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높이자고 화답했음.
- 이 회담의 구체적인 성과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전례 없는 경제정상회담이 진행된 점으로 볼 때 북 · 중 경제협력과 관련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을 것으로 추정됨.
- 한편, 김 위원장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6자회담을 비롯한 북핵 문제가 주된 의제였을 것으로 추정됨. 지난 25일 저녁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부터 북핵문제를 주로 담당해온 강석주 외교담당 부총리와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김영일 당 비서를 배석자로 앉혔음. 김 위원장과 통역을 포함해 총 5명만이 정상회담에 참가한 것임.
- 중국 측은 이 자리에 후 주석과 차기 최고지도자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 외에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 양제츠 외교부장,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 등 외교담당 관료와 함께 링지화(令計劃) 공산당 중앙판공청 주임, 장핑(張平)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천더밍 상무부장 등 경제 분야 관료들도 참석했음.

- 참석자들의 면면을 두고 북·중 정상회담에서 경협 분야는 성과가 미미했을 것이란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중국의 정치 환경에 대한 인식 부족에 기인한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음.
- 중국은 국가주석이 정치 국방 및 외교를, 총리가 경제 분야를 나눠서 책임지는 집단지도체제 국가로 사실상 복수의 정상이 존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일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보듯 원 총리가 국가 정상 자격으로 각종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있음.
- 한 소식통은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측의 경제 관료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경제 분야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중국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이번에 전례없이 경제 분야의 정상회담이 별도로 이뤄진 것으로 볼 때 양국 모두 경제협력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라고 말했음.

北라진항 확보 中훈춘 석탄업계 '신바람'(5/29)

- 북한 라진항 부두 사용권을 확보, 동해 진출 길이 열린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의 석탄업계가 내년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는 남방지역 운송에 대비, 대대적인 생산 설비 확대에 나섰음. 29일 훈춘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지역 최대 석탄업체인 훈춘광업집단유한공사는 2012년까지 2년 동안 12억 위안(2천억 원)을 들여 연간 석탄 생산량을 1천만t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음.
- 팔련성 탄광 등 모두 3개의 탄광을 보유한 훈춘광업집단은 연간 560만t의 석탄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시설 확장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이 업체의 연간 석탄 생산량은 종전보다 79% 늘게 됨. 훈춘광업집단은 우선 올해 연간 생산량을 800만t으로 늘리고 2012년 1천만t까지 끌어올릴 계획임.
- 올 1분기에 40만t의 석탄을 캐낸 팔련성 탄광은 올 연말까지 갱도 확장과 채굴 장비 개선을 통해 연간 생산량을 180만t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훈춘광업집단 산하 또 다른 탄광인 반석탄광도 오는 9월까지 시설 확장을 마무리 지어 연간 생산량 규모를 300만t으로 늘리기로 했음.
- 훈춘광업집단은 올 1분기 140여만t의 석탄을 생산, 3억5천만 위안(584억 원)의 영업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음. 이 업체가 대규모 시설 확장에 나선 이유는 중국이 라진항 부두 사용권을 확보함에 따라 남방지역으로 석탄을 대량 운송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임.
- 중국 창리(創立)그룹이 2008년 북한으로부터 라진항 1호 부두 사용권을 확보, 중국 두만강 유역에서 동해로 진출할 뱃길이 뚫렸다. 창리그룹은 이미 라진항 1호 부두 정박지 보수와 확장을 통해 연간 100만t의 하역 능력을 갖췄음.
- 훈춘-북한 원정리-라진항을 잇는 도로가 지금은 대규모 물류 운송이 어려운 비포장 도로여서 동해 뱃길이 가동되지 않고 있지만 이달 말 이 도로 보수공사가 시작돼 올 연말 완공될 예정이어서 내년부터는 라진항을 통한 동해 뱃길이 본격 가동될 전망임. 이렇게 되면 랴오닝(遼寧)성 다롄

(大連)항이나 철도에만 의존해온 지금과 달리 물류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어 훈춘을 비롯한 두만강 유역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곡물이 대거 남방으로 운송할 수 있는 길이 열림.

- 훈춘광업집단은 지난 1월 라진항 1호 부두를 통해 1만7천t의 석탄을 상하이 푸동(浦東)항에 시범 운송했으며 안후이(安徽)와 산둥(山東) 등 동부연안 업체들과도 석탄 공급 방안을 협의하는 등 동해 항로 개통에 대비하고 있음.

라. 일 · 북 관계

〈日언론, 김정일 방중 평가 엇갈려〉(5/27)

- 일본 언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관련 경제 분야에서는 성과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으나 북한의 핵 문제를 둘러싼 6자 회담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음. 아사히신문은 2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25일 회담에서 대화를 통한 핵 문제 해결 자세를 확인하고 남북 관계의 개선에도 의욕을 보였지만 구체적 조치에 대한 언급이 없어 사태진전을 예단할 수 없다고 보도했음.
- 신문은 이어 "김 국방위원장이 '남북관계의 개선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으나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측면도 있다"면서 "중국은 6자 회담의 의장국으로 북한의 양보를 얻으려고 노심초사해왔기 때문에 이번 회담 성과를 내외에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음. 신문은 또 "김 국방위원장이 작년 5월 방중 때는 '6자 회담 재개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고, 8월 방중 때는 '조기 재개를 진전시키고자 한다'고 말하는 등 방문 때마다 전향적 자세를 보였지만 구체적 진전으로 연결되진 않았다"고 전했음.
- 요미우리신문도 "북한은 김 국방위원장의 이번 방문을 통해 중국을 방패삼아 6자 회담 등에 강경한 대응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이는 한국의 경제지원 등이 필요 없다는 자세여서 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남북 대화를 모색하는 한국 정부가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고 보도했음. 이 신문은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핵 포기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북한이 바라는 미북 협의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노리는 것은 '북중' 대 '한미'의 구도"라면서 "김 국방위원장이 이번 방문에서 중국 동북부를 의욕적으로 시찰한 것은 중국을 가까이 끌어들이기 위한 포석이다"고 분석했음.
- 하지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양국 정상이 북핵 문제를 둘러싼 6자 회담 조기 재개에 일치했다"면서 "이는 중국 측이 김 국방위원장에게 강력한 압력을 가했기 때문으로 중국과 북한 관계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고 평가했음. 이 신문은 "만성적 식량 부족에 빠져 있는 북한이 경제지원의 강화를 원하는 데 대해 중국은 지원의 조건으로 핵 포기 등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행동을 취하도록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관측했음.

- 마이니치신문 역시 김 국방위원장의 6자 회담 관련 발언이 작년 8월 방중 때보다 진전된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이 6자 회담 재개를 요구하는 중국의 강력한 의사에 움직인 것으로 지금까지는 없던 자세라고 전했음.

마. 기 타

"北, 보안취약국 경유해 이란과 불법무기 거래"(5/26)

- 북한이 보안이 허술한 제3국을 이용해 이란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교환해왔다는 유엔 전문가팀의 보고서가 나왔음.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6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의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과 이란이 접경국가인 제3국을 통해 유엔이 금지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거래했다"고 전했음.
-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자가 여객기로 보안이 취약한 제3국에 당도한 뒤 몰래 비행기를 바꿔 타고 이란으로 향했다는 것임. 북한은 감시망을 피하려고 제3국을 거의 경유하지 않는 고려항공 대신 외국항공사 소유의 전세 비행기를 제3국으로 운항시켰으며 이란의 항공사 이란에어도 동원됐다고 RFA는 설명했음.
- 유엔 보고서는 2009년 12월 태국 방콕에서 북한이 이용한 전세기가 압수됐으며, 이 전세기의 최종 목적지는 이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음. 이때도 감시가 약한 제3국이 항로 변경을 묵인해줘 항공기가 무기거래 당사국으로 운항되는 식으로 불법 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음.
- 보고서는 또 2008년과 2009년 선박을 통해 미얀마와 북한이 불법 무기를 거래했다고 밝혔음. 북한은 선박이 세관을 통과하기 전에 무기를 빼돌리거나 외국 소유의 선박으로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감시망을 피했지만 전문가 패널은 북한과 미얀마 사이의 모든 거래를 조사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고서는 전했음.
- 한편 보고서는 북한이 최근 들어 불법 금융거래를 숨기려고 물물교환과 현금거래를 늘리고 있다며 조선광업무역회사와 같은 유엔의 제재대상 기업들의 지시를 받는 일부 무역회사의 간부들이 이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음.

美이어 EU도 내달 초 北식량평가팀 파견(5/29)

-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이 다음 달 초 북한에 식량평가팀을 파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음. 평가팀은 EU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사무국(ECHO) 직원들로 구성되며 미국 식량평가팀이 다음달 2일 조사활동을 완료한 이후 방북할 것으로 전해졌음.
- 정부의 핵심 소식통은 29일 "미국의 식량조사 활동이 다음 주 중으로 마무리되는데 이어 EU도 곧바로 평가팀을 보낼 예정"이라면서 "지금은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진행 중인 단계이며 식량지원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음. 이에 따라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시기와 규모, 방법은 EU 평가팀의 조사활동이 마무리된 이후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 소식통이 전했음.

- EU 평가팀은 약 2주간에 걸쳐 지방을 순회하며 조사활동을 벌일 것으로 알려져 빨라야 다음 달 하순부터 미국과 EU의 식량지원 검토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정부 소식통은 "EU 평가팀의 활동기간 등을 감안해볼 때 6월 중으로 식량지원이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7월 이후로 넘어갈 것"이라면서 "미국은 대북 식량지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음. 현재 한미 양국은 엄격한 분배 모니터링과 시장접근을 조건으로 삼아 대규모가 아닌 일정하게 제한된 규모로 식량지원을 하는 쪽으로 조율할 가능성이 커 보임.

유엔 전문가보고서, 최신 北UEP 공장 사진 공개(5/29)

- 미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을 '군사적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안보리가 이를 즉각 중단하도록 촉구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음. 또 북한이 평화적 이용이라고 주장하는 실험용 경수로 건설도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의 위반이라며 이를 중지하라고 권고했음.
- 이 같은 사실은 연합뉴스가 29일 입수한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최종보고서(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874)'에서 드러났음.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 지난 2일 지구 관측위성 이코노스(IKONOS)를 통해 촬영한 '영변 핵시설 단지(Yongbyon Nuclear Complex)' 사진과 '연료가공단지(Fuel Fabrication Complex)와 우라늄농축공장(Uranium Enrichment Workshop)' 사진을 첨부, 공개했음.
- 보고서는 "북한이 오랜 기간에 걸쳐 추구해온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군사적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쉽게 군사용도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음.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지크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에게 공개한 원심분리기 시설이 북한 내에 존재하는 단 한 개의 시설일 수 없다"면서 "저농축(LEU) 또는 고농축(HEU)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유사한 은폐 핵시설이 북한 내 어느 곳에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음. 보고서는 이어 "이는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에 대한 커다란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음.
- 보고서는 이에 따라 UEP와 실험용 경수로 건설의 중단을 촉구하고,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모니터링과 모든 핵시

설과 장소에 대한 전면적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보고서는 "북한이 UEP를 포함한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포기선언을 하는 게 긴요하며 IAEA는 향후 검증작업에 대한 잠재적 접근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음.

- 이밖에 "영변 핵시설이 사고와 오염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면서 "핵안전 문제도 비핵화 논의의 한 부분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음. 전문가 패널이 보고서에 첨부한 우라늄 농축공장 사진에는 120m 길이의 푸른색 지붕으로 된 건물이 있으며 지난해 이를 직접 목격한 헤커 박사는 1천개 이상의 원심분리기가 가지런히 정렬됐다고 주장한 바 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美8군 "고엽제 매몰 공동조사 적극 협조"(5/23)

- 존 존슨 미8군사령관은 23일 경북 왜관지역 미군기지 내 고엽제 매몰 문제와 관련, "한·미 공동조사에 적극 협조 하겠다"고 말했음. 존슨 사령관은 이날 오후 국무총리실을 방문, 정부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육동한 국무차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음.
- 육 차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한·미 공동으로 철저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정부 입장을 거듭 강조했음.
- 또 이날 민관합동조사단의 캠프 캐럴 내부 현장 점검에 이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 개최를 통한 한·미 공동조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음.
- 이에 대해 존슨 사령관은 "이번 사안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한국 측과 긴밀히 협조·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미 공동조사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고 총리실 측은 전했음.

"부천 미군기지에도 온갖 화학물질 매립"(5/24)

- 고엽제 매립 의혹이 제기된 경북 칠곡군 왜관읍 미군기지 캠프 캐럴 외에 경기도 부천 오정동에 있었던 캠프 머서에도 온갖 화학물질이 매립됐다는 주장이 뒤늦게 공개됐음.
- 미 공병단 44공병대대 547중대원으로 캠프 머서에서 근무했다는 레이 바우스 씨는 지난 2004년 5월 미국인이 운영하는 '한국전 프로젝트'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23일 밝혀졌음. 그는 자신이 캠프 머서에서 1963년 7월부터 1964년 4월까지 근무했다면서, 캠프 머서 근무 당시 불도저를 통해 구덩이를 파고 고무옷과 가스 마스크 및 모든 상상 가능한 화학물질 등 수백 갤런(1갤런 = 약 3.8ℓ)을 버렸다

고 말했음.

- 그는 매립 위치가 정문에서 오른쪽 두 번째 저장창고 뒤 언덕이라고 덧붙였음.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화학물질을 버렸으며, 이후 어떤 식으로 관리 또는 처리됐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음. 그는 또 캠프 머서에 주한미군 화학물질저장소(USACDK.US Army Chemical depot Korea)가 있었으나, 1964년 3~4월께 왜관의 캠프 캐럴로 이전했다고 말했음. 그는 USACDK의 이전 이유로는 화학물질 저장소가 비무장지대(DMZ)에서 너무 가깝기 때문으로 추정했음.

美당국, 고엽제 폭로 前주한미군 면접조사(5/24)

- 미국 정부는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주한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고엽제'를 묻었다고 폭로한 전 주한 미군 병사 스티브 하우스(54) 씨를 상대로 23일(현지시간) 면접 조사를 시행했음. 이날 조사는 애리조나 주 피닉스 외곽 하우스 씨의 집에서 20여분 거리에 있는 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오후 1시30분부터 4시간여 동안 진행됐음.
-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조사에는 하우스 씨의 변호사 시어도어 자르비가 입회한 가운데 흰색 상의 장교 제복 차림의 미군 3명이 참여했음. 이들은 공보 담당자와 군 폐기물 처리 전문가, 주한미군 관계자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음.
- 하우스 씨는 미군들을 상대로 1978년 캠프 캐럴에 고엽제를 묻은 장소와 방법, 작업 경위 등을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음. 면접조사가 이뤄지는 중간마다 미군 1명이 커튼이 쳐진 사무실에서 나와 어디론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도 목격됐음.
- 하우스 씨는 면접조사가 끝난 후 자택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오늘 만남이 생산적 이었다"면서 "모든 당사자의 협조 하에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으며 나도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음. 그는 "오늘 면담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면담 내용은 한미 양국에 통보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음. 하우스 씨는 "필요하면 더 만날 수 있지만, 현재로선 추가로 면담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음.

외교부 "SOFA 미비점 있으면 개정필요성 검토"(5/26)

- 정부는 고엽제 매몰 파문과 관련해 현행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음. 정부 핵심당국자는 26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우려 등을 감안해 SOFA 협정에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음.
-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고엽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현행 SOFA에 미비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을 경우 보완하거나 고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정부는 현행 SOFA 관련 합의에 포함된 환경관련 기준과 치유, 보상, 배상 기준이 모호하고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현재 SOFA 관련 합의는 ▲2001년 개정된 SOFA 본(本)합의 ▲같은 해 합의의사록 ▲같은 해 환경보호 특별양해각서 ▲같은 해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 ▲2009년 공동환경평가절차 합의서 등 모두 5개임.
- 정부는 검토 진행상황에 따라 SOFA 본합의를 직접 개정하지 않고 별도의 합의를 채택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음. 정부 당국자는 "현행 SOFA 규정으로는 2001년 신설된 환경관련 조항을 소급해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만일 고엽제가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치유를 요청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공동조사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본 뒤 보완점이 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음.
- 이 당국자는 이어 "현행 SOFA 규정에 따라 고엽제 매몰파문과 관련해 환경치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SOFA 규정이 다른 나라보다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미국 측과도 어느 정도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음.

한 · 미, 내일 첫 고엽제 공동조사(5/26)

- 한국과 미국 정부는 미군기지 내 고엽제 매립 문제와 관련, 오는 27일 캠프 캐럴 기지 주변에서 지하수 표본을 채취하기로 했음. 사실상 양국의 첫 공동 조사임. 한 · 미 양측은 26일 오전 10시부터 8시간 넘게 용산 미군기지에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음.
-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 27일 캠프 캐럴 기지 주변 10곳에서 지하수를 채취할 예정이며 여기에 미국 측 관계자들도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음. 양측은 미국에서 환경 전문가가 입국하는 대로 정식 한 · 미 공동조사단을 꾸려 다음 주부터 캠프 캐럴 기지 내에서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임.
- 이날 회의에는 양측 SOFA 환경분과위원장인 이호중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과 버치마이어 주한미군 공병참모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음. 조사단 구성과 관련, 우리 측은 정부 관계자와 환경 전문가, 주민대표 등 10명 안팎의 명단을 사실상 확정해 미국 측에 제시했으나 미국 측 명단이 확정되지 않아 미국과 조율한 뒤 조사단 구성을 최종 결정할 방침임.
- 홍윤식 총리실 국정운영1실장은 브리핑에서 양측이 이날 회의에서 한 · 미 양국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사항임을 확인했으며 고엽제 매몰을 폭로한 스티브 하우스씨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공동 조사를 벌이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음.
- 미국은 이날 2003년 삼성물산의 용역 보고서와 1992년 미 육군 공병단 연구보고서를 한국 측에 제공했음. 양측은 앞으로 모든 조사 계획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으며 제기되는 각종 이슈에 대해서는 SOFA 환경분과

위를 통해 협의키로 했음. 다만 '화학물질 매몰' 의혹이 제기된 부천시 오정동의 옛 미군부대 '캠프 머서' 등 다른 기지에 대한 조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음.

- 홍 실장은 "캠프 머서는 1993년 한국에 반환됐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조사를 이미 시작했으며 이와 관련해 과거 자료나 근거 자료가 있으면 (미국이) 협조하는 문제도 논의했다"고 말했음. 그는 또 "앞으로 철저하고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신속하게 밝혀 국민의 우려를 적극 해소 하겠다"고 말했음.

나. 한 · 중 관계

○ 한-중 특허청 '특허정보 교환' 양해각서(5/25)

- 특허청은 25일 중국 특허청과 특허데이터 교환 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음. 이 양해각서에는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공보 · 특허영문초록 등 데이터의 전자적 교환 ▲데이터의 심사업무 활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특허청은 특허출원 건수로 세계 2위인 중국 특허청의 특허문헌을 심사관이 직접 검색할 수 있어 심사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특허청 엄태민 정보협력과장은 "내년 1월부터 중국어 특허 공보 전문을 검색할 수 있으며 2013년부터는 중국어 번역시스템을 개발, 한국어로도 중국 문헌 검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음.

○ 한중대학총장 40여명 내달 영남대서 회동(5/26)

- 영남대는 내달 12~14일 경북 경산시에 있는 본교에서 한국과 중국의 대학 총장 40여 명이 참석하는 제3회 한중대학총장포럼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음. 한국에서는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중앙대, 포스텍 등이, 중국에서는 베이징대, 푸단대, 지린대 등이 참여함.
- 한중대학총장포럼은 인재 양성과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해 양국의 대학들이 서로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2009년 처음 고려대에서 열렸고, 제2회 포럼은 작년 장춘시 지린대에서 열렸음.

○ 〈김정일訪中〉 "中, 조만간 우리 정부에 설명"(5/26)

- 중국 정부가 이르면 26일 저녁 또는 27일 오전 중으로 북 · 중 정상회담 결과를 우리 정부에 사후설명(디브리핑)할 것으로 알려졌음. 사후설명은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가 이규형 주중 대사를 불러 설명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음.
- 복수의 외교소식통은 26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베이징(北京)을 떠난 이후 중국 정부가 우리 측에 북 · 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오늘 오후 베이징을 떠난 만큼 조만간 중국 측으로부터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 김 위원장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2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3시간이 넘게 회동했으며 김 위원장은 26일 오후 3시19분께 베이징역을 출발했음.

다. 한 · 일 관계

日, '독도는 일본땅' 중학교 교과서 공개(5/23)

– 일본이 '독도(일본명 다케시마〈竹島〉)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강화해 정부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교과서를 일반 시민에게 내보이기 시작했음. 일본 문부과학성은 23일 도쿄에 있는 재단법인 교과서연구센터 등 전국 9곳에서 중학교 교과서를 공개했음.

– 이 교과서는 3월30일 정부 검정을 통과한 것으로 내년 4월부터 사용됨. 공개는 6월30일까지다. 공개 대상은 내년부터 사용될 중학교 교과서 외에도 일부 고등학교 교과서를 포함해 218권임.

– 이번 중학교 교과서는 2006년에 개정한 교육기본법과 2008년 3월에 나온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2009년 7월에 나온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따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대폭 강화했고, 이른바 '유토리(여유) 교육'에서 탈피하겠다며 분량을 대폭 늘린 점 등이 특징임.

– 일본은 교과서 공개를 거쳐 8월 말까지 채택 지구별로 각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를 선택함. 한편 일본 단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와 후소샤(扶桑社)의 후신 이쿠호샤(育鵬社)는 지난달 28일부터 검정 교과서와 내용이 같은 이른바 '시판본 공민, 역사 교과서'를 판매하는 등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 일찌감치 홍보전에 들어갔음.

日, 한국 의원 남쿠릴 방문에 "매우 유감"(5/24)

– 일본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은 24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일부 국회의원이 남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일본)의 기본적 입장으로 볼 때 도저히 용인할 수 없고 매우 유감이다"라고 비난했음. 에다노 장관은 또 "한국 정부는 이 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남쿠릴열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의 기본적 입장과 모순되는 일은 없다고 (한국 정부로부터) 확인을 받았다"고 덧붙였음.

– 한편 자민당의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참의원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한 외무성 간부의 설명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컵에 든 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졌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에토 의원 등은 이날 열린 자민당 외교부회의에서 외무성을 상대로 '한국 의원의 남쿠릴열도 방문을 중단시키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느냐'고 추궁했음.

日, 여성부 장관 독도 방문에 '유감'(5/25)

–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일본 외무상이 25일 오후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의 독도 방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주일한국대사관이 밝혔음. 마쓰모토 외상은 또 강창일 의원 등의 남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방문에 대해서도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음.

- 이에 대해 권 대사는 독도는 역사적 · 지리적 · 국제법적으로 고유의 영토인 만큼 일본 측의 부당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고, 일부 의원들의 남쿠릴열도 방문에 대해서는 "정부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설명했다고 대사관측은 전했음.

"韓日, 李대통령 가을 일본 방문 협의"(5/26)

- 한국과 일본 정부가 올 가을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6일 보도했음. 이 신문은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22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때 이 대통령의 가을 국빈 방문을 초청했으며 양국이 협의 중이라고 전했음.
- 신문은 이어 이 대통령이 방일할 경우 한일 관계의 새로운 100년을 맞아 미래지향의 관계구축을 목표로 새로운 공동선언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일도서협정에 따라 일본이 반환하는 조선왕실의궤 등 1천205책의 도서도 이 때 전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음. 신문은 또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과 공동선언이 성사될 경우 이는 1998년 10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래 처음이라고 전했음.

〈울산고래축제는 한-일 민간교류의 장〉(5/26)

- 울산고래축제가 한국과 일본 간 민간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음. 26일부터 나흘간 울산에서 이어지는 이번 축제에는 일본 도시의 시장 일행이 개막식에 동참해 고래축제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일본의 전통 고래잡이 마을 주민과 고래고기 요리사가 대거 참석해 고래잡이 노래 공연, 한-일 고래고기 요리 맛 자랑 대회를 잇달아 염.
- 일본 야마구치(山口)현 시모노세키(下關)시 나카오 토모아키(中尾友昭) 시장과 세키타니 히로시(關谷博) 시의회 의장 일행은 이날부터 28일까지 울산을 방문함. 나카오 시장 일행은 이날 오후 7시에 태화강 둔치 특설무대에서 진행되는 고래축제 개막식에서 축사를 한다. 나카오 시장의 고래축제 개막식 참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임.
- 시모노세키시는 2005년 울산 장생포에 고래박물관이 개관할 때 많은 고래 관련 물품을 기증하는 등 고래를 매개로 울산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음. 28, 29일 오후 4시30분 태화강 고래마당에서는 일본 야마구치현 나가토(長門)시 가요이(通) 마을 고래노래보존회 회원 15명이 올해 처음 울산고래축제에 참여해 전통 고래잡이 노래 공연을 선보임.
- 가요이 마을은 360여 년 전 고래잡이를 위해 형성된 어촌으로 고래 법요식을 하는 특이한 곳임. 마을 주민들은 전통적으로 인간에게 단백질을 공급하고 고래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차원에서 죽은 고래의 영혼을 절에 안치하고 법명을 지어주고 있음. 이 마을의 고래노래보존회는 고래의 죽음을 애도해 소리가 나지 않게 빈 손뼉을 치고 고래의 넋을 기리

며 노래하는 공연을 무대에 올림.

- 2007년 울산고래축제 때 시작했던 한일 고래고기 요리 맛자랑 대회는 올해로 5년째를 맞아 28일 오전 11시 장생포 복지관에서 개최됨. 일본 고래고기 요리를 대표하는 요리사 2명이 고래초밥, 고래살코기 감자조림, 고래살코기 유자조림 등 우리에게 생소한 일본의 고래고기 요리를 선사한다. 울산의 고래고기 전문 음식점 요리사들은 고래 갈비찜과 탕수육, 볶음, 꼬지 등으로 일본 요리사와 대결함.
- 울산시 남구의 김두겸 구청장은 "전통 고래잡이 도시는 한국은 울산 1곳, 일본은 시모노세키를 비롯해 6곳에 이른다"며 "울산고래축제가 고래를 매개로 한일 간 문화와 전통을 비교하고 교류하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음.

日 국회, 한일도서협정 비준(5/27)

- 일본이 한반도에서 약탈한 도서 1천205책을 한국에 돌려준다는 내용의 한일도서협정이 일본 중의원(하원)에 이어 참의원(상원)을 통과해 비준됐음. 일본 참의원은 27일 본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가 제출한 한일도서협정 비준안을 찬성 145표, 반대 86표(유효 231표)의 찬성 다수로 가결, 비준했음.
-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토 고지(佐藤公治) 외교방위위원장(민주당)의 경과보고를 거쳐 곧바로 찬반 투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자민당은 이미 상임위원회(외교방위위원회)를 통과한 도서협정에 대해 토론을 요구하며 끝까지 반대했음.
- 토론자로 나선 기시 노부오(岸信夫) 자민당 의원은 "한국 장관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방문하는 등 언어도단의 사태가 일어난 와중에 책을 넘겨주는데 반대한다"며 "한국에 있는 일본의 주요 도서 반환을 요구하거나 프랑스처럼 장기 대여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간 총리가 졸속으로 만든 도서협정은 일한(한일) 관계에 화근을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음.
-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자민당 등 일부 보수 야당 의원을 제외하고는 공감을 얻지 못했고, 찬반 전자 투표에서 찬성 다수라는 결과가 나오자 니시오카 다케오(西岡武夫) 참의원 의장이 도서협정이 승인됐다고 선언했음.
- 이미 국회 논의를 끝낸 협정은 31일로 예상되는 내각회의를 거쳐 발효됨. 일본 정부는 도서협정이 발효되면 협정 문구대로 '6개월 내 반환' 준비에 착수할 예정임.
-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무상은 지난 24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협정 발효 후 준비 기간을 거쳐 적절한 시기에 반환 하겠다"고 말했음. 교도통신은 "올가을로 예상되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 시에 책을 인도할 것"이라고 전했음.

라. 한 · 러 관계

러 대사 "한국 의원들 쿠릴방문 환영할 일"(5/26)

- 러시아 외교부가 25일 한국 의원들의 쿠릴열도 방문에 대해 양국의 경제 협력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음.
-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미하일 벨리 일본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날 도쿄 현지 기자회견에서 한국 의원들의 쿠릴열도 방문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는 러-한 양국의 경제 · 통상 관계 발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음. 한국 의원들의 쿠릴열도 방문이 현재 논의 중인 열도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 계획과 주로 연관된 것이라는 해석이었음.
- 한국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강창일 의원과 문학진, 장세환 의원 등은 하루 전 러시아와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가운데 하나인 쿠나시르 섬을 방문했었음. 이에 일본은 이 방문이 러시아의 쿠릴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음.
- 벨리 대사는 "러시아는 일본에도 쿠릴열도에서의 가능한 형태의 (경제) 협력을 제안했었다"며 일본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 대사는 이어 "우리는 쿠릴열도를 러시아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기 때문에 열도에 대한 주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제3국이 필요 없다"고 강조했음.
- 한국 의원들의 쿠릴 방문이 열도에 대한 러시아의 실효지배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지배를 상호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한 일본 측의 주장을 반박한 것임. 대사는 그러면서 한국 의원들의 쿠릴 방문이 26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도빌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기간에 이루어질 러-일 양국 정상 회동의 의제가 돼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사는 "이는 러-일 양국 관계와 관련한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음.

마. 미 · 일 관계

日, 음주운전 사고 재판권 美측에 요구(5/24)

- 일본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미군 병사나 군무원의 재판권을 미국에 요구했다고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이 24일 보도했음. 일본 정부는 23일 총리관저에서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과 나카이마 히로카즈(仲井眞弘多) 오키나와 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기지 부담 경감 부회(태스크포스)'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미일 주둔군지위협정(SOFA) 운영을 바꿀 방침이라고 설명했음.
- 현행 미일 SOFA는 미군 병사나 군무원이 파티 후 집으로 돌아가다 사고를 냈을 경우 '공무 중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금까지는 만취했을 때만 '공무 외'로 보고 일본 측이 재판권을 행사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모두 일본 측이 기소 · 재판하겠다는 것임.
- 한편 한국은 미군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이미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음.

법무부 국제형사과와 민간단체인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관계자는 "훈련 중 교통사고라면 몰라도 음주운전사고 재판권이 문제 된 적은 없다"고 설명했음.

"주일 미군 재편비용, 합의액의 3배"(5/27)

- 주일 미군의 재편 비용이 양국 정부의 합의액 보다 3배나 더 들 것이라는 미국 정부 감사원(GAO)의 보고서가 나왔다고 아사히신문이 27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따르면 미 정부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오키나와(沖繩) 주둔 미 해병대의 괌 이전을 중심으로 한 주일 미군 재편 비용이 29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음. 이는 양국 정부가 지난 2006년 미 해병대의 괌 이전비로 합의한 비용의 약 3배 규모임.
- 미일 양국은 2006년 봄 합의한 주일 미군 재편 로드맵(일정표)에서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의 괌 이전 비용으로 일본 측 61억 달러, 미국 측 42억 달러 등 모두 103억 엔으로 명기했었음. 하지만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일본이 2006년 10월 미 해병의 괌 이전비와 별도로 오키나와 미군기지 재편에 42억 달러, 후텐마 대체 시설비용 36억 달러 등 모두 98억 달러를 부담하겠다는 의향을 미군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음.
- 또 미국 측의 부담도 국무부가 승인하기 전 해병대가 추정한 비용은 괌 이전 완료를 위한 추가 건설비가 47억 달러, 전기 · 수도 등의 조달비용이 24억 달러였음. 실제 미군 재편이 이뤄질 경우 당초 양국이 합의한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의 부담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과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美日 정상 "후텐마 이전 기존 합의 불변"(5/27)

-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주일 미군 후텐마(普天間) 기지의 오키나와(沖繩)내 헤노코(邊野古) 이전 방침을 재확인했음.
- 현지 언론에 따르면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를 위해 프랑스 도빌을 방문 중인 간 총리는 26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후텐마를 같은 오키나와현내 헤노코로 이전하기로 한 작년 5월의 양국 합의를 고수하기로 했음. 이는 오키나와 주민들의 반발로 후텐마 이전 문제가 진척되지 않고 있지만 기존 미일 합의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한 것임.
-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꼭 진전되길 바란다"면서 후텐마 기지 이전을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음. 양국 정상은 또 9월 중 간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고, 이에 앞서 6월 하순에 미일 안전보장협의회(외교 · 국방 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음.
-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음.

바. 기 타

"한중정상 오이시식 행사는 日의 무례"(5/26)

- 한 · 중 · 일 3국 정상이 지난 21일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에서 오이 등을 시식한 것과 관련, 일본 니카타 주재 중국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한 직원이 이를 일본 측의 '외교적 무례'라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음.
- 니가타 주재 중국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주리궁(朱麗松.24)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에 올린 글을 통해 중일 정상이 지난 21일 후쿠시마산 오이 등을 시식한 이면에는 일본 측의 외교적 무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홍콩의 명보(明報)가 25일 보도했음.
- 주 씨는 "일본측이 시식행사를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음. 주 씨는 21일 저녁 이 같은 글을 웨이보에 올렸으나 파문이 일자 곧 게시된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음.
- 니가타 주재 중국 총영사관은 일본 측의 외교적 무례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명보는 전했음.
- 앞서 이명박(李明博)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 등 3국 정상은 21일 오후 원전 사고 지역인 후쿠시마시를 함께 방문, 아즈마 종합운동공원내 실내체육관에 차려진 이재민 임시수용시설 앞에서 이 지역 농산물인 체리와 방울토마토, 오이 등을 함께 시식했음.
- 일본 측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농산물에 대해 커지고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 같은 이벤트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3국 정상의 시식 장면은 TV 등 언론매체를 통해 전세계에 소개됐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